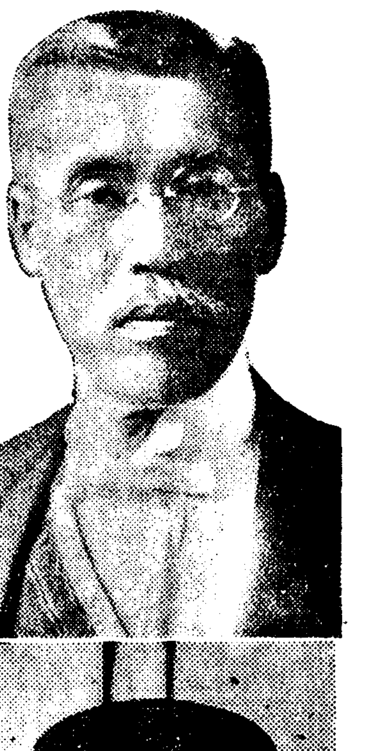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八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對歐策을俎上에

陸軍側態度를中心 具體的方策을協議

今日閣議後五相會議開催



【東京電話同盟】歐洲情勢對策의 具體的措置에 關하여 陸軍側으로서는 지난 六月五日 [illegible] 化에 對應하여 이를 決定할것을 要望、板垣陸相으로부터 此旨를 平沼首相에게 要請한結果 政府는 八日의閣議後首相官邸에서 緊急五相會議를열고 平沼首相以下關係各閣僚가出席하여 協議를하기로되엇다 이리하여 同日五相會議에서는 먼저 板垣陸相으로부터 過般、陸軍省部聯合協議會와 三長官會議에서 決定된 陸軍側具體的態度를 詳細히說明하고 이를中心으로 米內海相、有田外相、石渡藏相으로부터 가림업는意見을 開陳하여 歐洲情勢의 推移와 이에對處할 我具體的方策에關하여 愼重한 討議를할것이라고觀測되는바 五相會議는「그重要性에 鑑하여 最後的結論에 達할때까지 愼重히討議하고저 아마繼續하여 兩三回會議를 거듭하고 모든角度에서 檢討를 進行시켜 萬全對策의確立을 期하게될것이다」(寫眞은 平沼首相 下는 板垣陸相)

【東京電話同盟】對歐策處理에關한 五相會議는 定例閣僚參議懇談會散會後 八日午後二時부터 首相官邸에서開會、平沼首相板垣陸相、米內海相、有田外相、石渡藏相의關係五相出席下에 劈頭幹事役인 板垣陸相으로부터 會議開催를要請하게된 事情에關하여 報告한後 繼續陸相으로부터 前番의陸軍省部聯合協議會、三長官會議에서決定된 陸軍側의 具體的態度에關하여 詳細說明하엿다 이에對하여 米內海相、有田外相、石渡藏相은 各各으로갓 角度로부터 質疑가잇슨後 各閣僚로부터 腹藏업는 意見을開陳한 模樣으로 問題의 重大性에鑑하여 愼重히 檢討할必要上 會談은 아직 兩三回續行할것으로보인다

陸相、首相과要談

【東京電話同盟】平沼首相、板垣陸相은 八日午前九時四十分前後하여 首相官邸에서 閣議前에會見하고 陸相으로부터 對歐米問題에關하여 米內海相과 會談한顚末을報告하고 今後取扱方針에關하여 重要協議를하엿다

岡大佐太田翰長訪問 對歐策中心要談頻頻

【東京電話同盟】海軍省軍務局第一課長 岡大佐는 八日午前九時首相官邸에 太田書記官長을 訪問하고 對歐政策問題의 取扱에 對하여 協議하엿다

清水外務政務次官 太田書記官長要談

【東京電話同盟】清水外務政務次官은 八日午前九時 首相官邸로 太田書記官長을訪問 要談하고同三十分 辭去하엿다

定例閣僚參議懇談會

【東京電話同盟】八日定例閣僚參議懇談會는 正午부터 首相官邸에서開催 平沼首相以下各閣僚와 參議를除한 各參議出席 午餐을가치한後有田外相으로부터 東京會談經過其他에 對하여 報告를하고 當面諸問題에關하여 여러가지 意見交換을하엿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八日定例閣議는 午前十時十分부터首相官邸에서 開會、平沼首相以下各閣僚(櫻內農相旅行欠席) 出席 먼저 荒木文相으로부터 前回閣議에 繼續하여 國民精神總動員委員會에서 決定된 國民生活刷新擁護의 一項目인「興亞奉公日」制定의件에 關하여 原案대로興亞奉公日은 每月一日 이를實施하고 九月一日을 第一回日로하여 實施키로決定 繼續하여 有田外相으로부터 日英會談과 北樺太 利權交涉에 關하여 報告를하고 最後로 八田商相 法幣의 慘落에對하여 發言이잇고 石渡藏相 有田外相으로부터도 最近의 法幣事情에 對하여 說明이잇서 各閣僚間에 前後約四十分에 亘하여 意見開陳으로 法幣對策에對한 協議를하고 同十一時四十分 散會하엿다

大島駐獨大使 伯林에歸還

【伯林七日發同盟】大島駐獨大使는 지난三、四兩日에亘하여市北伊太利 景勝地인코모市에서 白鳥駐伊大使와 我對歐對策에 關하여 重要協議를한後 繼續하여瑞西에旅行中이엇던바 七日夕刻古門三等書記官을 帶同하고 伯林에 歸還하엿다

□…泥濘속을 苦行하는 皇軍勇士(濟安戰線)…□

佛國領上空에서 英空軍爆擊演習

【倫敦七日發同盟】英國空軍은 英佛共同防衛의 見地에서 佛國政府의 諒解下에最近頻繁히 佛領上空의 編隊 飛行演習을 하고잇는데 七日英國航空省은 英國空軍은 八日을期하여 佛領上空을包含한 大規模의 爆擊演習을 行하리라고 다음가치 發表하엿다

英空軍으로서는 最初의試驗으로 이演習에서는 爆擊機의 大編隊가 八日夕刻먼저佛國上空에 날고 그다음 그爆擊隊는 假想敵東方國의 各要部隊로서 大擧英國上空에 襲來하여 이를 기다리던 西方國의 飛行隊와의間에 壯烈한 空中戰을 展開할 豫定이다

英本國回訓到着? 會談遷延時엔安結에極支障

【東京電話同盟】日英會談은 지난四日 크레기英大使로부터 我加藤公使에 對하여 週末其他事由로 第七次 會談開催까지 暫時猶豫를 要請하여 停頓狀態에빠젓던바 七日夕刻부터 겨우英國本國으로부터 回訓이 到着하기 始作한模樣인데 大使館側은「本國으로부터의 最後的回訓은 아직 接受치안헛다」라고 述하는바 箱根에서 週末靜養中인 크레기大使는 八日歸京하므로 그때까지 英國政府의 最後的回訓이 到着되면 同日午後에는 第七次會談이 開催될수 잇슬것이라고 觀測된다 萬一八日午後에 이르러도 英國側으로부터 會談開催의 申請이 업는時는 我方으로서는 이以上 會談이 遷延되는것은 圓滿妥結에 조치못한 事態를 誘致할 憂慮가 잇다는 方針을 堅持하여 英國側에對하여 重大한 注意를 喚起케될것이다

데니스氏歸任

【東京電話同盟】日英會談治安問題細目檢討에 參加코저 지난七月二十九日來京한 天津英租界工部局警察署長데니스氏는 一旦任務를 終了하엿스므로 七日午後十一時東京驛發列車로 歸任의途程에올랏다

宮本少佐 피곳트少將訪問

【東京電話同盟】宮本少佐는 八日午前十時四十五分 英國大使館으로 피곳트少將을訪問 日英會談에關하여 事務的協議를하엿다

아렌書記官歸任

【東京電話同盟】아렌英文 英國大使館書記官(카大使秘書)은 東京會談에 [illegible]

賀屋元藏相 總裁就任確定的

【東京電話同盟】平沼首相으로부터 北支開發會社 總裁就任을 懇請한 賀屋元藏相은 八日午前十一時興亞院으로 柳川長官을訪問하고 同總裁問題에 對하야 懇談하엿는바 賀屋氏의 北支開發會社總裁就任은 確實하게보이고잇다

敵據點續續攻略 信陽大別山敵完全掃蕩

【漢口七日發同盟】七月下旬 京漢線信陽地區에對한 進擊을開始한 劉汝明軍의機先을制하여 그를殲滅戰에轉한 鈴木、松井、青山 各部隊는 겨우 數日만에信陽西北方五十數키로의 敵新據點○○及○○을 續續攻略하고 敵 [illegible] 部隊를 完全히 潰滅시킨다음 再次繼續하여 南部河南平原으로부터 大別山北麓方面에對하여 [illegible] 果敢한殘敵掃蕩戰을 展開中이엇다 各部隊는 赫赫한戰果를거두고 各其作戰基地로 歸還하엿다 同戰鬪에서 敵遺棄死體八百三十二 鹵獲兵器彈藥은 多數에達하엿다 또 右掃蕩戰에 策應하여 二日以來國際北方綏靖地帶에 依據한敵에對하여 掃蕩戰을 展開中이던 愛甲、松本、間宮、金田各部隊도 七日까지에 西大別山에 蟠居하는 敵出擊部隊를 完全히 驅逐掃蕩하엿스므로 信陽國際西北方 一帶地區에서는 敵의 片影도 볼수업게되엿다

植村企畫院部長 十五日에入京

滿洲國視察中이던 植村企畫院第四部長은 朝鮮視察次九日羅津着北鮮視察을한後 十五日入京豫定이다

廣西省省境 鎭南關을猛爆

【上海七日發同盟】艦隊報道部七日午後四時發表

南支方面

一昨五日海軍航空隊는 前日에 繼續하여 廣西省境鎭南關을爲始 扶南上金龍州方面의 重要交通線의 偵察攻擊을實施하여 鎭南關에 殘存한 倉庫七棟을 爆破炎燒케하엿다 또 다른航空部隊도 潮州方面에 出擊하여 同地東南方의 敵據點及 砲臺等을 攻擊 모두 多大한 損害를주엇다

帆山敵完全包圍

【漢口七日發同盟】我帆山部隊는 江西省德安 西北方十五키로帆山에蟠居하는 敵을掃蕩하고자 四日德安 西方으로부터 進擊을開始하여 同日夕刻鼓山(德安西方十四키로)前山(鼓山北方四키로)의要蝕에 依據하여 抵抗하는敵을擊破한後 數縱隊로分하여 帆山에 肉薄하여 七日夕刻까지에 同山을 完全히包圍하고 約三千敵兵에 對하여 殲滅戰을 開始하엿다

英佛蘇軍事會議 波政府軍部代表를派遣

【알쇼七日發同盟】七日 알쇼有力紙 크리엘알쇼스키-紙의 報道에依하면 波蘭政府는 近近開始되는 英佛蘇三國軍事會談에 自國의軍部代表를 派遣하기로되엇다한다 卽、波蘭政府는 英佛蘇三國軍事同盟이 獨伊의進出防止를 目標로한以上 當然히 右軍事會談에는 波蘭軍部도 參加할 必要가잇다는見解를가진模樣이다

三國軍事會談에서 援蔣問題를協議乎 蔣使節莫斯科에到着

【알쇼七日發同盟】七日 莫斯科로부터 알쇼府에 達한情報에依하면 蔣政權으로부터 蘇聯에派遣된 使節一行은 最近 莫斯科에 到着하엿다고 한다 軍事使節은 莫斯科에서 蘇聯의對蔣援助에關하여 莫斯科政府와協議를하게되엇는바 莫斯科에 相當長期間滯在할豫定이다 一方英佛蘇軍事會談도 近近 莫斯科에서開催되기로되엇스므로 蘇聯政府는 이機會를利用하여 右軍事會談의一議題로서 英佛蘇三國의對蔣援助에關하여 協議를할意向이라고한다

反蔣反戰運動澎湃 蔣、收拾策에苦心

汪、吳合作이重大影響

【上海七日發同盟】財政的破綻으로 遂疊업시 表明된 重慶政府의 抗戰方策의 全面的失敗는 重慶政府內部를 非常한混亂에 陷케하여 이間隙을타고 國共兩黨을 爲始하여 CC團、土和派、知日派 汪精衛派等 分子는 自派勢力의 增强을爲하여 各派가 어울려 猛烈한 策動을開始하여 抗戰陣營內部는 文字그대로 疑心暗鬼를 낫는一方으로 着着進展을 보이고잇다 汪精衛一派 和平救國運動의 儼然한事實은 이混亂에拍車를加하여 重慶政府內部에 大恐慌을 惹起시키고잇다 特히吳佩孚、汪精衛兩者의 接近提携와 이에따른 四川軍의 動搖는 多年蔣介石이 四川中央化를 爲하여 廢心하고 잇섯든만치 重慶政府에 주는 打擊은 想像以上이라고한다 最近當地에達한 情報에 依하면 일직부터「四川人의四川」을標榜코 表面中央歸順을 裝햇던 鄧錫侯、劉文輝、楊森等 四川土着軍閥은 서로 呼應하여 汪精衛、吳佩孚兩者接近提携의傾向에 따라 反蔣獨立運動을보이고 最近자주成都에會合하여 汪、吳提携에關한 여러가지 情報를交換하여 그動靜에對하여는 深甚한 注意를 쏠고잇는바 地方軍閥과 吳佩孚와의 接近을 極度로두려워하는 蔣介石은벌써 이傾向을探知하고 그腹臣인湖南薛岳、湖北白崇禧의 引率한 中央軍精銳五個師를 休暇交替名目으로 四川에 備戍케하고 鄧、劉等四川軍閥動靜에 嚴重한監視를 命함과同時에 現在四川에 駐屯中인 中央軍大部隊를 錢大鈞、湯恩伯의 兩直系將領의 指揮下에너허 萬一에備하는外成都軍官學校分校에서 特別養成한 蔣介石의 親衛隊士官을 各地軍政機關에 配置하여 澎湃히 어일나고잇는 各地의反蔣反戰的動向을 未然에 抑壓하려고 慘憺한苦心을하고잇다한다 (寫眞은 蔣介石)

支那軍總攻勢說 上海支那紙喧傳放送

【上海七日發同盟】四月攻勢의失敗에도 不拘하고 敗戰에敗戰을 거듭하는重慶政府는 最近또六月攻勢 九月攻勢說을 喧傳放送하고 잇는바 七日當地支那紙夕刊은更히 今冬或은明春에 支那軍總反攻說을 揭載하고잇다 同記事는 蔣介石은 數日前軍事委員會政治部長陳誠同副部長周恩來와함께 飛行機로 前線某地에서 各將領과 會談 重要軍事會議를 開催한結果 中國軍隊의 再建訓練은 이미完成하엿스므로 日本軍을支那本土로부터 驅逐하려고 今冬부터 明春사이에 大規模의 反攻戰을 展開할것이라고 報道하고 更히 總反攻의 三段階로서

一、遊擊隊를 擴大하고 日本軍後方을 攪亂하여 日本軍으로 하여금 左顧右眄 그 處置를 困難케하여서 그潰敗를促한다

二、그다음 政治戰을 展開하여 淪落區域各地方의 民衆에 抗日意氣를 鼓舞하고 臨機로支那軍에 呼應할準備를 시킨다나

三、이리하여精銳中央軍黨部는實力으로 長沙 衡陽 [illegible] 方面으로 正式出動하여 正面으로부터 反抗戰을 展開하여 一擧에 撲滅을期한다

라고 그럴듯이 報道하고잇스나 이가튼 誇張은도리혀 依存外交의失敗와 法幣崩潰에 依하여 重大危機에 直面하고 或은汪精衛 [illegible] 敗되어 [illegible] 하는 [illegible] 民心은 [illegible] 스므로 一般支那人에 對한 宣傳效果는 [illegible] 할것이라한다

타이國政府 華僑檢擧를開始

【上海八日發同盟】七日 重慶發支那側電報는 지난廿八日 盤谷으로부터 重慶에達한 타이國內華僑事情에關한報告를 다음가치 報道하고잇다 即 타이國에서의 官民의對中國態度는 最近急變하여 타이國政府는 七月以來 華僑의大量檢擧를開始하엿다 檢擧된華僑는모두 救國抗戰運動에 熱中하는者들로 中國國民黨員 梁偉成、陳文奏等 救國運動의首腦者外에 華僑廣東銀行도 救國義金募集에活動한때문에 家宅搜査를받고 右兩銀行도 [illegible]理가檢擧되엇다 또 七月中에 閉鎖를當한 華僑小學校도 廿餘校에達하여 그때문에 在타이華僑는 憤慨하여가는形便이라한다 그리하여 重慶當局은 右事態에 對하여 다음가치 泣訴的解釋을報道하엿다 타이國은 一九三二年政制改革以來 急激히親日的이되고 또 日本人多數가 타이國에들어와서 各種으로策動하여「타이國人에依한 타이國建設」이라는標語下에 英佛勢力을 驅逐하려고하는一方 또中國華僑의勢力도 減殺시키려고 多年工作을進行시키고잇던것으로 蔣政權에서는 타이國政府今後의動向을 嚴重注視하고잇다

遂溪를空襲

【香港七日發同盟】廣州灣에서온 報道에依하면 我航空部隊는 大日午前 雷州半島의 戰略要衝遂溪를 空襲하여 市內軍事諸施設에 猛爆擊을加하여 多大한 損害를 주엇다

日米通商條約廢棄와 蘇聯各紙의報道

日米通商條約廢棄에 關하여지난 廿九日莫斯科諸新聞은 一齊히「日本緊張하다」라는題下에 我國이 米國으로부터 石油、屑鐵、銅鐵、棉花等을 輸入하고잇는狀態를 述하여「條約廢棄의 結果는日本政府가 熟知하는바이다」라고하고

一、伯林發타스로서日本外務省公式發表는米國의 이條約廢棄에 出한動機는 諒解키 難한바이며 右決定은重大한 政治的事實이라고 述한旨

一、華府타스로서 國務省은 日米間에 新條約締結前에政治問題에依하여 交涉할必要가 잇서서 金銀現送及日本品에對한 輸入稅引上問題에 對하여는大藏省과도 協議를行할 意向이라고述한旨

一、紐育타스로서、모겐소長官은 日本으로부터의金銀現送、輸入稅引上은硏究할것이라고말하다

一、倫敦타스로서、로이터通信은 同地支那側에서는 米國政府의 廢棄에 大滿足으로 支那에精神的支援을주는것이라고 報道하는旨를 傳載하엿다

汪精衛特使 盤谷에서活動

【盤谷七日發同盟】汪精衛는 和平救國을 標榜하고 蹶起한以來 心腹部下를 南洋各地로 特派하여 南洋華僑說服에 努力하고잇다고 傳하는데 盤谷에도 數週間前부터 文某라는 汪精衛의 特使가 와서 極秘裡에同地、華僑와 連絡을 取하고잇는것이 判明되엇다 記者는 六日에 特使와 會見하엿는데 그는南洋華僑間에 汪精衛의 支持者가 意外로 多數인것을 發見和平運動은 近近華僑間에 澎湃히이러나리라고 自信잇게말하엿다

波抗議에對해 단치히側回答文手交

【단치히七日發同盟】단치히、波蘭間의 問題를圍繞한 紛爭에關하여 七日 단치히參議院은 去五月波蘭外交代表로부터 提出된 抗議에對하여 七日付로 단치히側回答을 手交한것을 七日發表하엿다

旱害地歲入缺陷 內務局對策考究

總督府內務局에서는 今回旱害에伴한 道府邑面學校費、學校組合等에서도 財產收入이 相當히 減少될모양이요 또는地方稅、使用料等의 減免에依한 減收도相當額에 미칠것을 豫想하여이對策考究를爲하여 前記內容에關하여 來十五日까지 報告를모으기로되여 七日附로 京畿、忠南北、全南北、慶南北七道知事에게 各團體의 歲入缺陷豫想額의 提出을 通牒하엿다

張鼓峯事件記念日과 共產黨機關紙批評

【莫斯科六日發同盟】蘇聯第一極東赤軍司令官 그레고리·슈테른三等大將은 最近反革命陰謀에關聯되어 罷免되엇다고 傳하던바 六日張鼓峯事件一周年記念日을當하여 事件當時 블류헬元帥의參謀長이던 슈테른大將은 依然第一線極東赤軍司令官의 資格으로共產黨機關 프라우다紙及 赤軍機關크라스나야·즈브에즈다 紙上에『蘇聯의極東은 難攻不落』이라고 題하는論文을揭載하여 그健在를實證하엿다 슈테른大將의論文은例에依하여 張鼓峯事件은 赤軍의敗退를 勝利라고 宣傳하여 反日宣傳을일삼은것이다

人事·集會

▲山之內二郎氏(朝鮮軍參謀朝鮮總督府御用掛)轉任人事次來社
▲山口武三郎氏(朝鮮軍參謀)新任人事次來社
▲西岡芳次郎氏(總督府 衆議室首席事務官) 東京出張中七日午後歸任
▲伊藤泰吉氏(總督府警務課長)平南北經濟警察官會議出席次八日午後三時二十分京城驛發平壤에出張
▲阿部泉氏(總督府警務局事務官)同上

八面鋒

◇暴力엔 暴力으로! 波蘭國軍統帥의 叱呼。
◇獨逸空軍의威勢를 [illegible]相이 怒叫。
◇단치히如意珠를두고 兩龍相搏의 言論戰。
◇土、羅도 軍事同盟、西班牙는 一黨治國、流行은 모던보이의 獨占物이 아니럿다。
◇法幣市勢가 再崩落、不法維持가 原因일께라。
◇國府使節一行이 莫斯科着、援蔣布施請하는 托鉢行脚。
◇支離한 英回訓이 오늘이야 올모양、原則審査가잇는때 回訓云云부터 挾詐。
◇旱害地勞働力을 鑛工業으로는 조흐나、金가루 쇠가루가 代用食料가될는지

무서운結核病.患者百万以上!

한번걸리게되면 現代醫學으로도 治癒하기極히어렵다는結核病은 해마다蔓延되여 現在全國的統計를보면 患者一百二三十萬이라는 實로두려운 現象을呈하고잇습니다。또한死亡者의年齡을본다면 大槪二十歲乃至二十五歲의靑年期가 第一만라하니 이보다더큰寒心한일이 어데또잇겟습니까?

結核은어떠케傳染되나?

結核病은一種의傳染病으로서 勿論結核患者의痰、排泄物 其他여러가지接觸物로써感染되나 이外에도結核菌이 空氣中에散在하여잇서 身體의抵抗力이弱해질때 或은重病을알코恢復이完全치못할때에 感染되기쉬웁습니다。더구나今年여름가튼더위에 口味와體重이줄고 體力이弱해질때 그대로衰弱이오래가게되면 結核에感染되기 第一쉬웁습니다。

治療보다豫防!

이와가치무서운結核病은 虛弱할때걸리기第一쉬우므로 日常體力을增進하여 抵抗力을强化하여두면 설혹病菌이侵入햇드래도 病作用을이르키지못하므로 무엇보다適當한運動으로써 身體를鍛鍊하는同時에 滋養强壯劑를服用하야 充分한營養을供給하는것이 結核豫防에最善의方法입니다。

不幸히感染되여 結核初期에이를지라도 滋養强壯劑를連服하는同時에 速히醫師의診察을바다治療한다면 決코不治의病이아니올시다。

世界的强壯劑ネオトン(NEOTONE)은 人體에必要한 諸種營養素를適當히含有하엿스므로 呼吸器를强化하고 消化機能을促進시기는等身體의諸器官에 活力을賦與하야 虛弱體의恢復을促進시길뿐아니라 結核菌을撲滅하는有效成分이 含有되엿스므로 結核의治療와豫防에는 優秀한効力이잇습니다。

(本劑의信用에對하야는醫師諸賢께問議해주십시오)

效果本位

適應症
肺結核、神經衰弱、貧血症
腺病質、食慾不振、産前產
後、榮養障碍、病後恢復期

包裝 小瓶 中罎 大罎

世界的强壯劑 ネオトン 네오톤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米國羅府、臺北、天津
(全國有名藥房販賣)

旱災로因한歲入減 巨額豫想、對策講究
七道知事에게調査要項을通牒하고 各其自力補塡을示唆

이번 한재로 인하여 도, 부, 읍, 면, 학교비, 학교조합등에도 재산수입의 감소와 지세, 사용료등의 감면에의한 감수등은 상당한금액에 달할것으로 예상되므로 총독부에서는 그대책을 강구하지 안흘수업는관계상 칠월부 내무국장명의로써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등 칠도지사에게 통첩을 발하여 오는십오일까지 조사보고하도록하엿는데 그요항은 다음과갓다

一、通牒要領

세입감(歲入減)은 각단체모두 한재(旱災)로인한 전답으로부터의 재산수입의 감소

가, 지세부가세, 호별세, 동부가세 또는 부가금(賦課金)등의 감면(減免)에 따르는 감수

나, 부(府)읍(邑)면(面)에서는 국세, 도세와 학교비부과금의 감면에 따르는 교부금의 감수

다, 부(府)와비 학교조합에서는 도세 지방세부가세의 감면에 따르는 도보조금의 감소

一、이상세입감소에 대하여서는 전기방법에 기하여 될수잇는대로 각단체의 자력으로 그보충책을 강구할것

가, 기본재산의 조성(造成)과 여러가지 적립금의 축적등은 원측적으로 중지할것

나, 임시사업은 될수잇는대로 연기또는 중지를 단행할것

다, 기부금, 보조금등은 특수한것밧게는 이를 감액(減額)하거나 또는중지할것

라, 기타경비는 절약감액하기에 노력할것

잇는 서범석(徐範錫)(?)이다는 작두에게 짝사랑으로면모하엿스나 거절당한것을 비관한것이다

"時局詐欺輩"團束
皇軍慰問갑네하고利權運動가는따위

지나사변이래 조선서지나로들어가는사람의수효는 가속도로늘어 작년일년동안에는 이만팔백오십일명이 더되엇고 금년에와서는 유월까지인 반개년동안에 벌써 작년일년동안의 총수효를뛰어넘고잇서 이만일천칠십팔명이라는 놀랄만한 수짜를뵈여주고잇다。 그러나 그중에는 아모러한확고한준비와 계획도업시 지나에가면 논벼락을맛는다는막연한생각으로 들어가는 소위『만연도지자』(漫然渡支者)가 적지안어작년에도 약천명가량이다『보호송환』이라는명목으로 도루쫏겨나왓지만 금년도 벌써천여명이나 송환되어 오는형편이다。 더구나『황군위문』을빙자하고기실은 이권운동기타의 영리를목적으로 들어가는 시국사기배가 점점늘어가는 기색이보여 성전의 노픈뜻을 흐리게하는 폐단이적지안흠에 비추어 경기도외사에서는 팔일관하각서에 통첩을띄우고 만연도지자의 저지에 노력하되 특히황군위문을 빙자하고 그실은 돈버리로 들어가려는 사기배를 엄중단속구명하라고준엄한 명령을내리엇다

만으두할것하다 원인은 부내장사정(長沙町)백팔십번지 술집에

和信織物部에서 "買占"事實綻露
本町署서摘發코鍾路署로移牒

수일전 본정서경제경찰계에서는 화신(和信)직물부에서 작년유월에 지지미 일천삼백이십필을 매점하여두엇다가 금년봄부터 매필에 오할내지 십이할이나 비싸게판사실을 탐지하고 직물부장 윤우식(尹宇植)씨를 임의출두형식으로 소환취조한결과 사실이 판명되엇스므로 사건전체를 소할서인 종로경찰서로 이첩하엿다 종로서에서는 사건내용을 전국적으로 조사할모양이다

齒科全般 X光線科 金昌齒科 釜山草梁入口 電一六七一

結核豫防展覽會
明日부터南大門小校에서

총독부 경기도 일본적십자사조선지부 공동주최의 『결핵예방전람회』는드디어 명일 구일부터 부내남대문소학교에서 막을열게되엇다 회기는 열흘동안이며 일반의 만흔참관을 바란다는데 회기중 이와병행해서 각처에서 결핵예방의 활동사진을 상영할터이며 또라디오와강연회도 수시로열어 일반의인식을 새롭게할터이다 (사진은 전람회장)

警防團歌募集

총독부에서는 오는 시월일일부터 실시되는 경방단(警防團)으로하여금 힘차게부르게할 『경방단가』를 널리 모집하게되엇는데 가사에는 유월이십일 하사(下賜)하옵신 이본총재궁전하(梨本總裁宮殿下)의 영지(令旨)의 어정신을 넣을지라하기를 바란다고 하며 상금은 입선하면 상금백원, 가작세명 오십원씩이며 경무국방호과로 구월십일까지 보내면 된다

酒酊꾼檢束

부내 소격정(昭格町)백삼번지 자칭지주 정규렴(?)은 팔일오전이시 …에서 술을마시고 써-비스가나쁘다고 여급을나무라고 욕설을하며 기물을 깨트리다가 종로서에 검속되엇다

貨物自動車가顚覆 "乘客"十八名死傷
昨夜高原郡下의慘變

【高原支局特電】 칠일밤아홉시쯤 고원자동차운송점의 자동차운전수 하창록(韓昌錄)은 동운송점소유의 류덕합남일천오백육십일호에 경찰허가업시 사람열아홉명을 태우고 고원군산곡면화남리(高原郡山谷面花南里)를 떠나 고원읍으로 오던도중 전복되어 타던사람중 한사람은 즉사하고 열일곱명은 중상을입어 고원읍순천(順天)의원에서 응급수당을 바닷는데 그중여섯명은 생명이위독하다

그리고 전복된원인기타는 방금경찰에서 조사중이다

甕津邑廳舍 九月頃竣功

【甕津】 오만읍민의 지치기판 황해도 옹진읍당국에서는 작년십월일일에 읍제실시가된후로부터 읍정사가 협착하여 적지안흔불편을느끼어 읍정사건축예산으로 이만육백칠십오원과 창고신축비로 육백이십원을합하여 총공사비 이만일천이백十십구원으로 지난오월상순부터 공사에착수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오는십오일이 준공기일이나 모든재료난으로 지연되어 오는 구월중순께가서야 준공될모양이다

婿養子制度
十月부터實施決定
法令手續은不日中으로完了

조선인도 내지인과가치 시집가면 남편의성을따르고 또는데릴사위로 서양자(婿養子)가되는등 조선인서양자제도는 작춘이래 총독부에서 법령안을 작성하여 지난봄에 법제국(法制局)에보내어 심의검토를 구하엿던바 대개원측적으로 양해햇슴을어덧스므로 정식결재를 거처서 오는 시월일일부터 실시하기로 내정한후 총독부에서는 법제국의 정식심의결재를 촉진하는동시에 그실시를 준비하는중이다

이조선인 서양자법은 민사령개정안중의 하나로서 발포되는것인데 일비민사령중에 편입하지안코 단행법인제령으로서 실시하기로되는것이다

이번령안의 내용인즉 이상에말한바가치 안해는남편의성을 따르고 아들업는사람은 데릴사위양자를한다 그리고 또 각자히망에의하여 내지인의성명을 따르는등 풀자로하여 오래동안전해오던 관습적제도를 타파하는것으로서 오래동안두고 그실시여부에대하여 여러가지 말은만헛스나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못하고잇던중 드디어 이번에 이것이 실시하게되는것이다 그리하여 총독부에서는 법제국의요구에의하여 불원간 법무국암도사무관(岩島事務官)을 법제국에보내서 이에대한세목을 설명케하기로되엇는데 이설명만 끗나면 법제국의 수속은 끗을맛치게되는고로 곳실시의수속에 들어가게되는것이다

西岡事務官 談

이에대하여 오래동안 동경에출장중이던 총독부심의실(審議室)서강수석사무관(西岡首席事務官)은 다음과가치 말한다

조선인 서양자법령안은 방금 법제국에가서잇는데 의외로속히 끗나서 실시하게될듯하다 이에대하여 법제국에서 총독부측의설명을 요구하므로 법무국암도사무관(岩島事務官)이 번호사시험이끗난다음 곳 동경에 출장하여 설명하게될것이다 타지청(籍律關) 관계문제와 미곡시장령 문제등기타여러가지 미진한것이잇스므로 나도 오는사일경 또다시 동경에 출장하랴고한다

짝사랑품고 飮毒한木手

부내관수정(觀水町)화광교원(和光敎園)에 유숙하는 목수한덕암(韓德岩)(二〇)은 칠일밤열시반쯤되어 독약을먹고자살을도모하엿는데 응급치료한결과 생명은

內地在留學生들의 指導參考案作成
今日‧局長會議에報告

총독부 정례국장회의는 팔일아침여덟시반부터 제삼회의실에서 열렷는데 서강(西岡)심의실 수석사무관으로부터 내지의 무역성(貿易省)의 기구는 방금기획원(企畫院)에서 심의 입안중이라고 상세한 설명이 잇섯고 계하어 단하(丹下)자원과장으로부터 소화십사년도와 십오년도의 물동(物動)계획의 기본방침에대한 설명이잇섯고 또 염원(鹽原)학무국장으로부터 내지에가잇는 조선인학생의지도를어떠케할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저간부터 협화회(協和會)관계자와 협의한결과 총독부로서의 참고안대요(大要)의 보고가잇슨후 동아홍시반 산회하엿다

人天敎主에死刑
殺人鬼도주검은무서워…求刑듯자痛哭

유사종교백도교(白道敎)수전정운의맛아들로 백백교(白白敎)주전용해(全龍海)의 형인인천교(人天敎)주전용주(全龍珠)(五〇)와 그의 심복한일봉(韓一鳳)(四八)에 관한 살인사기보안법위반등 피고사건의 공판은팔일오전열시경성지방법원에서 부옥(釜屋)재판장주심대국(大國)검사입회하여열렷는데 피고두명은 전기여러가지죄명중에서 살인행위에관하여서만은이것을 부인하엿스며 오후한시쯤 사실심리를마치고 입회검사로부터 인천교주 전용주에게는사형 한일봉에게는 징역일년을 구형하엿다

이날방청석은 의외로 한산하엿섯스며 사형구형을바든 전은 어줍하다그만하며 소리처울어 악마의최후답지못한 태도를 취하엿다 다음질은이다된 한일봉은 대귀가엄어서 서기의입에 귀를갓다대고 구형을듯더니 『일년이개월을잇섯는데 또 일년의 보른사람안』하며 소리를질러 보른사람으로하여금 우슴을 금치못하게하엿다

사건내용을보면 전용주는 대정십삼년 일월부터 강원도이천군이천면(伊川郡伊川面)에 근거를두고 인천교(人天敎)라는 유사종교단체를만든후 불로장수와고판대장을 미끼로교도를 획득하는한편 금품사취와부녀지 농락을 일삼다가 소화십이년사월 강원도횡성서(橫城署)에 검거된 임시 무고한교도 열세명을죽여버린것이다 또한 이사건의언도는 오는십오일이다

仙道敎事件
最高五年懲役求刑

불로장생(不老長生)을 표방하고 다수한 교도에게서 다액의헌금을바더 간부들이 사복을채웟다는 유사종교선도교(仙道敎) 주김중섭(金重燮)(?)외열명 에관한치안유지법위반피고사건의 언도공판은팔일 경성지방법원에서열렷는데 부옥(釜屋)재판장으로부터 다음과가치 피고열명에게 전부체형언도를 하엿다

▲金重燮(四二) 懲役五年 未決通算百四十日
▲朴京龍(四三) 同二年六月 同
▲徐瞬煥(三五) 同上 同
▲安敬煥(四七) 同上 同
▲金仁權(五二) 同上 同
▲李連玗(五三) 同上 同
▲金天應(四三) 同上 同
▲徐仁煥(三六) 懲役二年 未決百二十日
▲康泰燮(六二) 同一年 同
▲金貴東(?) 同一年六月 本刑相當日數通算

酒酊꾼때문에 電車乘客落死
門안닷고、運轉한탓

칠일밤 저녁여섯시오십분쯤되어 영천(靈泉)으로부터 동대문(東大門)으로가던 경전이백삼십이호전차=운전수마희준(馬熙濬)=가 종로삼정목사십칠번지압길을 달릴지음 운전대외출입구에 서잇던 신설정(新設町)삼백육십삼번지외 이십이호 경궤도인부 백인기(白仁基)가 여페서잇던 술취한 안모(安某)가 흔들거리다 밀치는 바람에 차박그로 떠러저 두개골이 깨어지고 제대병원에다려가 응급수당을 햇스나 여덟시에 절명하고말엇다

종로경찰서에서는 백의 죽은이유가 술취한 안모가 밀친데도 잇스나 그보다도 운전대의 출입문을 닷지안햇기때문이라하여 운전수를 업무상 과실치사의죄로 인치취조중이다

警防團組織協議會

【龍岡】 룡강경찰서에서는 지

五十餘國百餘都市와 朝鮮서도"여보시요"
國際電話、九月에는一齊開通

조선에서도 세계오십여개국과 전화로『여보시요』를 교환할날이 드디어다다라왓다 지난칠월일일부터는 경성과북지사이에 직접전화로 마음대로 연락할수잇게 되엇거니와 오는구월부터는 세계전화를개통하기로 그동안 암남체신과장(岩男遞信課長)이 동경가서 체신성과교섭한결과 결정되엇다 개통식이구월초일로예정이고 통화할수잇는곳은 세계오십여개국 백여도시로 세계전화총수의 구할삼분이라는 대부분의가입자와마음대로 이야기를 할수잇게되니 과학문명의 큰힘에 놀라지안흘수업다

조선의 통화구역은 경성외에 평양 부산으로넓힐키로 연구중인데 먼저 유선으로 동경을거처 명기송신소(名崎送信所)로 보내여 그곳에서 전세계에 무선으로연락하며 수신은 소실수신소(小室受信所)로부터 동경을거처 들어오는경로이다 조선과동경사이의 요금은 치지안키로 되엇스므로 동경에서 하는요금과갓다

洪儀驛溝內에 殉職者記念碑

장고봉사건(張鼓峰事件)이 폭격을당할때에 홍의역(洪儀驛)에서 순직한만철사원청곡치언(靑谷治彦)씨의 기렴비를 홍의역안에 건설중이던바 요즈음에 준공되엇스므로 기렴일인구일에 제막식을거행하기로되엇다 유족을 비롯하여 관민다수가 참렬할터이며 그의출신학교인경성철도학교동창회에서는 대표가 출석하기로되엇다

山林種苗組理事 湯田溫泉서被殺
自殺?他殺?議論紛紛

【忠南文化】 충남산림종묘조합(忠南山林種苗組合)이사 금자정유(金子政裕)씨는 요전에자기의고향인 산구현(山口縣)에다니러가서 탕전온천(湯田溫泉)수야여관(水野旅館)에 묵고잇스면서 희대(喜代)라는여자와 동숙하엿섯는데 어쩐일인지 권총에명중되어 죽엇다는전보가 지난칠일 오전아홉시쯤 전기조합으로 날라들게되어 천만의외에 이러한 통지를 밧게된 동조합에서는 당황하여 즉시 조선(부천)의 한양의 동조합평의원을현장에 급파시켜 사실을 탐지하는중이다

이제 자살이냐? 타살이냐? 하는 미궁(迷宮)에 빠저잇는금자씨의 죽엄에대하여 대전사회에는 여러가지로 해석되고잇는데 동조합의 이야기를 듯건대 금자씨는 소화원년 취임한이래 한동의 파실이업시 지나오게되엇는데 지난유월 남지전선(南支戰線)을 시찰하겟다는 명목으로 대전서에서 신원증명을얻고 또 호신용(護身用)으로 휴대하고저 권총을구입하여 이역시 대전서의허가를 어더가지고 칠월상순에 출발하여 상해(上海)로가는도중에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묵고잇다가 이제자기의 호신용으로 휴대하엿던 그권총에 도리어 자기의목숨이 사라젓다는것은 자못이상한일로서 혹은 진작부터 이일을계획하고 권총을 구입하나 안햇나하는것이다 그리고영정(榮町)에잇는 금자씨의가정을 방문하여 그부인의말을듯건대 지난칠일 금자씨로부터 모든가족이 이편지보는대로 곳고향으로 도라오라는편지를 밧엇고 뒤미처 또한소식을 고대하든차 뜻바게비보가 도착되엇는데 이번일은 순전히청천벽력이라서 무어라고 말할수도업다고우름석긴말을하엿다

스포-츠뉴-스

鮮滿對抗日程
兩軍選手五百餘名

朝鮮體育協會主催의 第二回鮮滿對抗綜合競技大會는 來十八日부터 二十日까지의三日間 京城運動場을中心으로 朝鮮日報社大講堂、京城乘馬俱樂部馬場等에서 十一部門의競技를 一齊히擧行할터인데 出場人員은滿鮮을合하면 實로五百餘名에達하는 壯觀을呈할터이다 三日間의 스케줄을 紹介하면 다음과가트며 滿洲側選手一行은 十七日午前八時三十分과 同日午後九時三十分에 二班에나누어 入京할豫定이다

◇第一日十八日(金)
▲軟式庭球(學生對全滿洲)午後三時
▲蹴球第一回戰 午後五時
(以上京城運動場)

◇第二日十九日(土)
▲硬式庭球(單式)午前九時
▲入場式 午後零時二十分
▲籠球 午後一時
▲男女排球一回戰 午後一時
▲女子籠球番外戰及男女一回戰午前九時
▲陸上競技 午後二時
▲軟式庭球一回戰 午後四時
▲野球一回戰 午後四時
▲럭비-戰 午後六時
(以上京城運動場)

▲男女卓球 午後一時(朝鮮日報社大講堂)

◇第三日二十日(日)
▲男女卓球 午前九時(朝鮮日報社大講堂)
▲馬術 午前九時(京城乘馬俱樂部馬場)
▲硬式庭球(單式)午前九時
▲軟式庭球二回戰 午後一時
▲水泳 午後一時
▲男女排球 一回戰午後一時
▲女子籠球番外戰及男女一回戰午前九時
▲蹴球二回戰 午後四時
▲野球二回戰 午後四時
▲閉會式 午後六時
(以上全部京城運動場)

日滿自轉車競技
李、鄭兩君一着

【新京】 日本自轉隊來訪第一戰은 지난五日午後三時부터 新京兒玉公園코-스에서 擧行하야 滿洲를 壓倒하고 日本軍이 全勝하엿다

▲(二千米)1二瓶(日)一分三四秒七 2服部(日)一分三五秒
▲(千米)1李潤白(日)八分二六秒五 2山田(日)八分二五秒一
▲(三千米)1鄭度(日)五分一五秒七 2新宅(日)五分一五秒八
▲(一萬米)1桜井(日)一八分二〇秒八 2山田(日)一八分二一秒
▲(二千米追拔)1日本三分二六秒八 2新京三分四四秒

拳鬪無勝負
朴龍辰對野津

【東京電話同盟】 朴龍辰(日本)對野津(滿洲)의八回戰은 七日午後七時부터 日比谷公會堂에서 擧行한바 朴君과野津君雙方의 苦鬪로 無勝負로마치엇다

최아는 방송에 만담이라고 하여 조선말로의 욕설이라는욕설을 못된사투리를 다써가면서 지리하게 늘어노한다▲속담에 조흔말도 세번하면 듯기실타는말이잇는데 하다못해할말이 업서서 욕설만을 늘어놋는다는것은 방송국의체면보다도 이것을 들어야할 조선사람들의 창피가아닐수업다▲못느니 대체 이것을누구더러 드르라는말인가 하기야 제법보하는재간을 펴보느라고 햇을는지 모르지만 남못하는짓을 하는것이 모두재간일수업는것은 더말할것도업다▲이러니저러니 떠드는것도 말업서서 욕설을 늘어넛는단 말인가 방송내용이 빈약하다는 청취자의 주문이 어지간하고보니 이놈들 한번써보아라하고 안하던짓을 한셈인가▲이것은 방송국자의 취미가저급하고 교양이부족한때문이라고 말할밧게 더말할여지가업다 대개 오락이란것은 흥미만이 문제가아니고 유쾌한 감흥을주고 또교양적이어야하는것이거늘▲하물며 방송국은 사회교화를위한 기관이아니엇던가▲조심하라

天氣豫報

概況 七四八粍의 低氣壓은 四國南海峽에잇고 北海道東岸에도低氣壓이잇다 高氣壓은沿海州로부터 朝鮮東岸에퍼저잇다 今朝鮮은 天氣가조흐나東岸은흐리고 元山에는 비가오고잇다 內地는 晴曇不定이고 地方에따라 비가온다 朝鮮內의氣溫은 例年에비하여 南岸은大差업고 其他는 二度乃至四度高다

報豫 오늘밤과 내일은 동풍이불고 개엇다한때흐린다

昨日最高 三七度四
同 最低 二二度九
今朝最低 二四度九
同 正午 三三度一

오늘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三〇 兒童劇『매미와아이들』▲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七時講演 ▲八時講演『日本의進路』▲八時三〇分 連續野談(一)『仁者無敵』崔汝成 ▲九時京畿歌謠 ▲九時一五分大笒獨奏 ▲十時一〇分中等國語講座

第一放送 ▲午後六時(東)童話劇▲六時二五分(城)經濟講座▲七時四〇分(北京中繼)▲八時(東)浪花節▲九時(東)物語

科學의進步는時刻을다툰다!!

淋疾治療期間短縮에또短縮

世界的三大權威博士淋疾治療新學說發表!

獨逸 オステルベルグ博士
獨逸 ヘルムホルツ博士 發表!
日本 土屋 博士

科學의進步는時刻을다투어研究에研究를거듭하고精密에精密을더하야絶對的인最高製品을만들기에邁進하고잇다

殺打淋은 淋界에最高製品이며、其治療的効果에잇서서도 斯界最高權威醫學博士의報告에準하면患者擴生如何에따라百%(百人中百人)完治된다고發表하엿다

科學者는、現狀에서滿足하지안코現狀보다좀더나은것을만들라고苦心硏究한다 그리하야獨逸オステルベルグ、ヘルムホルツ兩博士、日本醫學界最高權威土屋博士는 殺打淋(チスルフオンアミド)은 淋疾에 어느藥보다第一잘드르나ヘルオス錠과並服하면走馬加鞭格으로殺打淋作用을促進하고副作用이全無하며治療期間을一層短縮하야患者가容易하게、平安하게、時速히治療할수잇고治療率百%를確保하야全治할수잇다고實驗報告를發表하엿다

ヘルオス錠의特長

❶殺打淋과ヘルオス錠을並用하면殺打淋의化學的‧藥理的作用을促進하야治療期間을從來보다一層短縮하고 絶對的으로 完治率을넌다

❷膀胱‧尿道‧攝護腺等粘膜刺戟이업고自覺症狀을消滅시킨다

❸胃腸障害가全無하고消化를助長한다

【特告】

普通體質에는 殺打淋만服用하여도特効를어들수잇스나 特異體質‧虛弱體質‧特히消化器가弱한분‧最短時日에治療하실분은 ヘルオス錠을並用하시요!

殺打淋
ヘルオス錠

急性用 五圓
慢性用 十二圓
病院用 二十圓
100錠 五十錢

所房 藥 製 興 新 新井藥 新興 株式會社 京城府堅志町 京城府南大門通

支店及出張所 北京市前門外西河沿二三七號 大阪市高麗橋五丁目 滿洲國圖們市春風街三〇 ハルビン市地段街三六

元賣 總發賣代理店

여름에 百補丸을 勸하는 理由

甚한 감믈에
못이기여
마르난 農作物은
一滴千金의
滋雨가 必要하고
百度以上暴暑에
시달니난
사람의 身体에난
百補丸이 絶対必要
自古로 三伏더위에
肉개장을 먹난것도
補身하기 爲함이다

●今年의더위는 三十三年來의 처음되는 殺人的大暴暑임으로 人體의抵抗力이 餘地업시 低下되야重病者가 續出하며 虛弱者는 路上에 쓰러지기도한다

●하로밧비 百補丸을써서 身體各部의根氣를 造成하야 暴暑와 여름을익이자!

●兵書에 有備無患이라하엿스니 百補丸을 미리미리쓰시라!

危險

더위가 過度하면 사람도 죽는다
감을이 過度하면 草木도 마른다
虛弱이 過度하면 百藥이 無効하다

더위는사람의健康을 餘地업시破壞한다!

●여름에는 땀이나고 기름이빠지고 元氣와陽氣는 間斷업시주러들고 口味가업서지고 食慾이줄고 消化不良과 체증속병等이생기고

●氣血이衰退하고 몸이疲勞해지고 抵抗力이弱해지며 全身이虛弱해짐으로 肺病 속병 貧血症 神經衰弱等 不治의重病들이 身體의虛弱해지는틈을타서 사람의五臟에집히侵入한다

●몸이 第一虛弱해지는여름철에 補藥을안쓴다는것은 목마른때물마시지안는것과 맛찬가지입니다 醫師들도 여름엔 補藥을 쓰라고 勸합니다

●虛弱이過度해지면 百藥이無効한法이오니 하로밧비 百補丸을 服用하여 튼튼한몸이되시요

▲消化不良을根治하려면
對症的消化劑는禁物!
健脾强胃劑를쓰시요!

●체증이나 消化不良에對하야 一時的効果밧게업는 對症的消化劑를쓰는것은 오히려危險합니다 누구나 胃散가튼것으로 체증을곳칫다는사람은업습니다

●百補丸은 健脾消滯의二重作用이 有함으로 아모리완고한 胃腸病이라도 根本的으로 完治됨으로 消化不良 체증等은 간곳업고 氣血이旺盛하여지며 몸이튼튼하여짐으로

●누구든지 체증을 根治하려면 百補丸을쓰시요

속지마시요!

◆百補丸이 天下名藥으로 朝鮮藥業界有史以來 最高最大의 賣上記錄을내게되고 萬人이모다 歡迎하게됨을따라 百補丸을 모방하는補藥類似品이 各地에橫行합니다

◆藥이면 다藥이아니고 補藥이면 다補藥이아닙니다

◆속지말고 반드시 平和堂의百補丸을쓰시요 제아모리조타고하는 補藥이라도 모두 百補丸만은못합니다、一劑에五十圓、百圓하는補藥도 百補丸만못하고 一劑에三四圓五六하는補藥도 勿論 百補丸만못합니다

◆또요새 沃度劑니 호루몽劑니 비타민劑니 또人參、鹿茸 附子 六八味等 어떤藥을勿論하고 그實効로보아 모두 百補丸만못합니다

◆百補丸은 歷史가第一오래고 累試累驗의秘方藥이요 藥材도 極히精選하야 朝鮮에서 第一큰製藥設備와 能熟한製藥法으로 製造하므로 다른濫造藥과는 그効力이天壤之差입니다 속지말고 반다시 百補丸을쓰시요

藥價

百補丸	一劑	十圓
婦人百補丸	一劑	七圓
少年百補丸	一劑	五圓
無料進呈	(어느藥이고三劑以上共同注文하면 周旋人께 一劑無料進呈)	

元氣不足! 陽氣不足! 胃腸衰弱에!

百補丸

生男生女天下名藥

婦人百補丸

부인의

●경도부조와 자궁병 냉병 대하증 불임증과 산전산후 기혈부족에 효력천하제일

●月經血色이조와지고

●月經時期가一定하여지고

●赤白帶下와 惡臭가一掃되고

●月經時 腰痛腹痛이絶對的으로 업서집니다

●얼굴이 절머지고粉이곱게잘먹습니다

●음식을잘먹고 몸이 튼튼하여지고 혈분이조와집니다

●단산하엿든부인도 생남합니다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京城府堅志町五 • 電話光 六六三番 三三三番 二二〇番 振替五番

重要販賣所

一、本社直賣部
二、總督府商工獎勵館
三、全朝鮮十三道廳商工獎勵館及商品陳列所
四、全朝鮮有名藥店
五、和信・三越

家庭

아동의눈을위협하는 무서운"도라홈" 시내소학생의백분의이가이환자

—眼科醫師 魚澈氏 談

도라홈─안질로는 제일무서운병아닙니까。 그런데시내 각소학교에는 현재일천유백명이라는「도라홈」에걸린아동이잇습니다。

「이번에학교를 이용하여 의전(醫專)부민병원(府民病院)적십자(赤十字)그외멧군데의안과전문의를 합하여 일부분데에서 특히 이아동들을치료하는데 그중의하나인 어철안과(魚澈眼科)에서도약이백명의생도를 치료중인데 이제원장어철선생님께 이에대한 일반가정에대한 주의를 뭇기로 햇습니다」

(도라홈) 이란 열에 칠팔명은 아주보지 못하게되는 매우 무서운병입니다。뿐만아니라 한번걸리면 여간 장기적으로 치료하기전에는 종신고질이 되고마는 이병이 시내 조선인 소학교아동 약칠팔명중에 일천유백명의 환자가잇다는것은 대단히 우려할현상입니다。

× ×

『도라홈』이란병은『프로밧체크』소체(小體)란 병원체(病源體)로된다고하나 아직 그병원체를 확실히 [illegible]고할수는업습니다。

어쨋든 이병원체가 결막(結膜)에부터가지고 병을 일으키는데 결막에는 두가지가잇습니다。즉 검결막(瞼結膜)과 구결막(球結膜)인데 검결막이란 보통우리가 눈을뒤집고보는것이 결막이고 구결막은 보통우리가 흰자위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체가 처음엔 검결막에 부터가지고 차츰 구결막까지 침범하고 나중엔 검은자위까지 침범합니다。

대개 경증、중증정도、중증이러케 구별할수잇는데 경증이면 삼개월내지 오륙개월 매일가치 계속해치료하면 치료할수잇스나 중증정도만되어도 만 삼개년동안 꼭한사람의 전문의에게 치료를 계속치안흐면 전치되엇다고 보증할수업다고합니다。

(증세는) 위선 걸리면눈속에 이물감(異物感)을 느낍니다。이물감이라하면 눈속에무에들어간것처럼 깔끄럽고 늘 무에잇는것 가튼감입니다。

그다음에는 눈곱이낌이다。그러나 이병은 처음 걸려가지고도 오래동안 환자자신이 모르고 잇는이만치 급격한아픔이나 증상이업습니다。

별로 아프지안키때문에 치료를 게을리하는동안 아주중증에빠저 차츰 시력(視力)이 감퇴되는데 원낙이병은 극도의만성병입니다。

「도라홈」엔 여러가지 종류가잇는데 대개 과립성(顆粒性) 유취성(乳嘴性)、『판누-쓰』、첩모란생증(睫毛亂生症)등、이외에도 만습니다。

위선「도라홈」이생기면눈딱지속에 파립성종(?)이생기고 그것이 차츰여러게단을밟어『판누-쓰』성이되면 그땐

(헌막이) 자꾸 검은자위를 내려덥습니다。헌막이 검은자위를 내려덥플때 보통그것을『삼』이선다고하는데 그것은 결코 삼이아니라『판누-쓰』인것입니다。

이것이 검은자위를 다내려덥프면 그만실명하게되는데『도라홈』은 결여서 불과몃해만에 실명하는수도잇고 멧십년만에 실명하는수도잇는데 흐렬에 두셋은 실명하지 안흘수도잇습니다。

내가대학병원에잇슬때 본것인데 만호개월동안에 비가오나눈이오나 매일치료하러오는 환자가잇섯는데 그러던분에 얼마간 낫는것을 보앗스나 이병은 역시 이와가치 장기적으로 치료하지안흐면 안됩니다。이러한병이 소학교아동에게이처럼만타는것은 여러학부형과 학교당국이 크게 우려해야할일이라고생각합니다。현재

(아동들은) 대개 경증이므로 삼사개월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나흘수도잇스나 아무래도 개학때까지 다치료는 못될것입니다。

「도라홈」은 비교적전념이더디되나 가튼반아동의「도라홈」이잇스면 전념될위험이 썩만습니다。

세수수건、세수대야는 절대로 따로쓰고 함부로 손을눈에대이지못하도록하고 손을 자주씨서야합니다。

학교에서는 곳환자를 치료하여 다른아동에게 전념되지안케하는게 상책입니다。

음식은 지극이 덜한것이조코 눈을 너무괴로케말며 치료법은 전문의에 손이아니고는 다른방도가 업습니다。

미국가튼데는『도라홈』환자가 입국하지 못하게 되어(?) 잇습니다。이병을 연구하려면 병원체를 원숭이눈에너허가지고 실험합니다。조선가정에서 흔히

(노인들)이 풍안(風眼)이라해서 눈시울이 짓무르는것도 대개「도라홈」이니 절대로 주의해야합니다。

물건너이야기 영국여학생의 "자유를우리에게"운동

『옥쓰포-드』대학에서공부하는 영국여학생들은 요즘 대학당국에대해서『우리에게더자유를주시요』하고 대운동을일으켯습니다。

그운동의 요구는 대학기숙사에잇는 그여학생들의 생활은 너무 무미건조해서 견딜수가업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전영국여학생총회를대표해『옥쓰포-드』지부장「홀론」양은 대학당국자에게 [illegible] 다음과가튼 조건을 제출하게 되엿습니다。

(가) 여학생은 통행허가업시도 밤늦게까지 기숙사밖게서 놀수잇슬것

(나) 점심시간으로부터 저녁시간까지 남자친구를 자유로 자기방에 초대할수잇슬것 밤에는 열시까지 공동응접실에 초대할수잇슬것

(다) 손님이오는경우엔『칵텔』을마시고 그남자친구와 [illegible]수잇서야할것

(라) 종내 시험때에는 겸은제복 정모구두는 폐지할것

쎄여서도정신혼미

【問】 한오륙년전에 전신마비를 식히엇이잇는데 그후부터는 밤에도 혹시그러하나 흔히는낫잠을잘때이면 무엇이불편하지 자세하지는안으나 정신상고통이심하여 잠을깨일려고 무한애를쓰다가 겨우깨면은속정신은 잇스면서도 말할래도 말을못하고손도팜삭못놀리고 그때만일 누구가잇서서 조곰만건드려주던가소리라도 질러주면은 깨여나는데 혼자서는 여간힘이안듭니다 혹 누구에게 물으면은 이병에는자다가깨지만 못하면 죽고만다니 이병에대하여 치료법과 처방을 아르켜주소서 (谷山邑 李根澤)

【答】 깬뒤에 속정신은 잇는데 언어동작이 잠간분리되엇다해서 분리병(分離病)이라고합니다 조곰도생명에는 관계업습니다 안심하시고 이처방대로 복용하시요 만일효과가 현저하지안으면 다시한번 물어주시오

(一日分三回分服食後卅分) (醫學博士 明柱完)

아기까지지나코보니 남편은부인잇는사나이

【問】 금년이십일세의 여자올시다。이미남의 안해된지사년 또는 자식이둘씩이나 잇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보니 남편에게는 멀정한 본처와 자식이오 남매나 잇지안켓습니까。이것을안저는 참기가막힙니다 이제와서 아니살자니 천덕꾼이 되겟고 불행해못견디겟고。서로헤여지기는 매우곤난한데 세상에 이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선생님 아니살어야 올흘까요 그대로살어야할까요(시내답답생)

남편은본부인께로─ 당신은어머니의길로─ 李泰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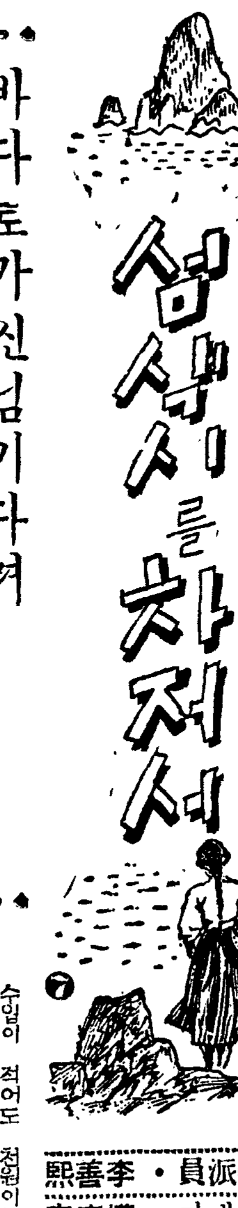
【答】 어떠케 그러케 경솔히 혼인부터 햇습니까? 당신의남편은 의식적으로 꾸민것이니까 죄이지만 당신은 잘 알아보지 못한실수일뿐죄라고는할수업습니다。그러나이제안이상엔 그본부인에게대한 사죄가업슬수업습니다 그본부인은 신여성이라면 당신은 그본부인에게대한 미안이 더커야합니다。배운사람이 배우지못한사람에게 타격을 주는것은 더나뻐지이니까요 즉 약한사람을 도아는못주고 짓밟는것이 되니까요。

당신은 당신의말씀대로 아이들의장래를 생각해 지금남편과 아주남이되는것은 곤란합니다。그러나 경우대로만한다면 당신은먼저 그본부인에게가서 사죄하고 남편에게 생활비와 아이들교육비를 요구해가지고 떠로나가서 아이들의어머니로만살고 남편은 본부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올흡니다。만일 이러케하기가 어려우면 본부인에게가서 그본부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상의하십시오。

아씨의건주머니 모기장간수는이러케

여름이지나면 모기장은 잘손질해너허두어야 하지안켓습니까。위선 우물리진곳에 걸어서 잘말린후 솔기솔기를 풀을솔솔게개여가지고 미테서부터 접어서 줄에걸고 풀칠을하는데 그냥 빨래처럼 쥐여짜서 하지말고 자쪽 솜에무처서 하십시요 그래서 쪽펴서다시말리면 빳빳해서 새것가튼데 내년에쓸때 기분이조흡니다

섬색시를차저서 (7)



特派員・李善熙 카메라・權泰完

바다토가신님기다려 밝혀서새우는밤 성황당국사님아 님의배지키라!

상봉보다이별이자저서러운섬색씨

어섬엔 사람이 살기시작해서 아직 한장의 부부도 이혼해본 일이업습니다。

그거슨 늘 남편이 바다에 나가 잇기때문에 그다함이업는이별속에서 서로、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까닭이라고합니다。

내가 하룻밤 유숙햇던집도 젊은부인이 일곱살먹은 아들하나를 다리고 바다에 나간지 벌서 두달이나 넘는 남편을 기다립니다。

『우리주인은 발동선을 타고 나갓서요』

어섬엔 발동선을 타는사람이 만흐나 해초로는 수업이 적으나 한번 이발동선을 작만해서 타게되면 일년수입이 적어도 천원이상이랍니다。

◇ 발동선 한척은 삼천원가량이되는데 저번에도 말햇지만 방파제가 업기때문에 딴곳에다 나며 고기를 잡는답니다。그러므로 이섬에 주민들의 최대의희망은 어서 해초만따지말고 발동선 한척을 사가지고 고기잡는 거시랍니다。

『이이롱도 아이아버지가 서울서 사서 인천으로해서배에실고왓서요』

그러고보니까 과연 거울이 달린 서울이층장이 이방에노혀잇습니다。부인은 서울옷장을 노흔것을 몹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치마감인지 어디구경해보서요。이런걸 서울서 입나요?』

부인은 물이나케 농문을열고 이번남편이 가지고왓다는 치마감을끄내 뵈입니다。

연두빗바탕에 꼿무늬가 노흔 인조『빔베르크』종류입니다。

『쌀、바늘、면주、옷감가튼건 죄다 오실때 사가지고와요。여게서야 살수잇나요』

◇ 한번갓다가 떠날때마다 안해가 부탁하는 지드레한 물건을 그 우락부락한 바다의 사나히들은 한가지도 잇지안코 배가 항구에 다흘적마다 사서는 몽처두엇다 가지고온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옷감사러갈 것업겟군요』

『웨요 가끔 장에가는사람의게 부탁도하고 또움에서 황의장사들이 배타고오기론하지요』

『밧갓어른이 죄다사온다면서 도사요?』

『그래도 또 집안에선 나간사람옷을지어두고 시퍼요。일년에 며칠식에 게시지안흐니까 오실때나입으시게……』

그래서 바다에 나갓든 이들은 집에만오면 새옷을말숙하게 가려입고 되도록 잘먹는데 어거슨 집에오는때가 그들의 유일한 휴가인까닭이랍니다。

『며칠식이나 계서요?』

『그저 새벽에왓다 아츰에가는때도잇고 낫에왓다 일흔저녁을 채못드고가는때도 잇는데 제일오래잇는때가 보름은되지요』

어지경으로 생활이되엇스니 그들은 언제 머워하고 실흥어나고 바람이나고 할여가가업고 항상 수운천리를 사이에두고 그리워마지안는답니다。

◇ 어섬에 부부도가 이처럼 다분의『로맨티시즘』을 가젓기때문에 거기따라 모든희로애락의정이 비교적 안온하여 경칠이업스되 아직 살인사건은커녕 절도사건하나 일어난일이 업답니다。

『다만어서 방파제가 되어서 해초만 생겨품삼지말고 배를타고 고기를잡엇스면 이는지상의낙원─조금도 엔누리업는 지상의낙원일것입니다』

어섬에 종교는 섬제일노픈곳에지어노흔 성황당(城隍堂)에 배례합니다。

떡갈나무숩이 욱어지고 잡초는 길길이무성한 성황당엔 어섬의 오가독을비는 직향이 두어장의 백지와 두어단의집단에의지해 안치되엇습니다。

◇ 일년에한번 소나 도야지를 잡고 원섬중이 목욕재계하고 제사를 드린답니다。

부인들은 남편이 바다에나가고 드러갈때는 의례소식하고 살생을금하고 시루떡을쪄서 고사를지내고 그리고갓을 쉬음준비해가지고 배에가서 처음하는데『칠성판』을지고다니는 수라고하니만치 남편의목숨은 의혜하므로 어섬의부인들은 신을의지하는맘이만합니다。

어섬의공동소유인 보리밧체 소박한 금년 심한가물도 별로들이업스나 부인들이 군데군데 업드려 김매는거슬볼 수잇습니다。

우리가 어섬을 떠날때는 쪽 한낫이 되엇는데 아이어른이 배ㅅ전에 모혀서 말업스나 할거리는뜻을 줍니다。

『하느님 가의도의 방파제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배는 다시 그칠벌가튼 바다를 [illegible] 떠한사이로 꿈개빠저나왓습니다。

長篇探偵小說 魔人 【125】

金來成 作 崔根培 畵

劉探偵의懊惱(三)

해월이가 주은봉을 해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수업다。이 중대한 문제에 판하여 유불란 탐정과 오상억변호사의 의견은 정반대로 대립하여엿던것이다。

『해월은 절대로 은봉씨를 해하지 안흘것이라고 나는 지금까지 생각해 왓습니다。그러고、그리고……』

유탐정의 얼굴에는 일종 헤아릴수업는 심각한 오뇌의 비치 뭉게뭉게 떠오르기 시작하엿다。

그것은 마치 고무방망이로 뒤통수를 한번 어더마즌것과 가튼 무참한 얼굴이엇다。

『참패(慘敗!)』

이와가튼 두글짜가 유탐정의 얼굴에 알알이 떠올랏다。

『유불란씨가 그처럼 생각하시는데는 물론 상당한 근거가 잇슬줄 압니다만은 나는 해월의 잔인한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서 제일의 복수─즉 백영씨에게 대한 복수를 마치고 제이의 복수─은봉씨에게 복수의 칼날을 던지리라고 나는 생각하지요。지금 해월은 자기의 선언한바를 한번도 실행에 옴기지 안흔적은 업스니까요。』

『대단히 흥미잇는 문제입니다』

하고 그때 엄경부가 유불란에로 얼굴을 돌리며

『해월이가 은봉씨를 절대로 해치지 안흐리라는 유불란씨의 지론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보시면 어떠켓습니까?』

하는 엄경부의 말을 바다 은봉은 예상하엿든듯이

『네、그럼 좀 똑똑히 말슴해주세요。정말 그러타면 얼마나 조흘까! 정말 저는 목숨이 한치한치 줄어드는것 가태서 견딜수업서요。』

은봉은 언제든지 자기의 몸을 해월의손으로부터 구제해주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잇는 모든것을 바치여도 한이 업다는 ─말하자면 생명을 유지하겟다는 일종의 본능으로 말미아마 자기의 모든 지각을 상실한 그러한 태도엿다。

매남 오상억의 출연으로 말미아마 유불란에게 쓰디쓴 실연의 고배를 맛보게한 주은봉이엇스나 그러나 사랑보다도 목숨이 아까웟던것이다。

유불란은 물끄럼히 은봉의 얼굴을 바라보앗다。아니 그는 은봉의 흑진주처럼 새깜한 두눈동자를 쏘는듯이 드려다 보다가 그는 마치내 무슨 위대한 결심을 한듯이

『해월은 절대로 은봉씨를 해하지 안흐리다! 그러나……』

이 한마디의 결론은 유불란탐정에게 잇서서는 너무도 무서운 단언이엿다。그가 지금까지 지니고온 모든 명예를 이 한마디에 걸어노핫다는것을 독자제군은 멀지안하서 깨다를 날이 올것이다。

『그 이유는?……』

오변호사의 신랄한 질문이엇다。

『그 이유를 나는 이자리에서 설명할수는 업습니다。그 이유가 여러분 아페 공개되는 날 사건은 무사히 해결될것입니다。─임경부 저로 하여금 사흘동안에 여유를 갓게하여 주십시요。사흘후에는……』

『사흘후에는?……』

『사흘후에는 살인귀 해월을 체포하여 드리겟습니다!』

『해월을?……!』

하고 놀라는 임경부를 무시하고 이번에는 시선을 옴겨

『은봉씨!』

하고 힘잇게 불럿다。

『네에?……』

그어떤 격정(激情)으로 말미아마 은봉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엇다。

『전일에 잇서서 은봉씨는 나의 하나밧게 업는 애인이엇습니다!』

유불란은 무슨 이유로 사람들 아페서 돌연 이러한 말을 끄내는고?……

은봉의 시선이 총에 마즌 참새처럼 똑하고 무릅우에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도 은봉씨는 나의 하나밧게 업는 애인입니다!』

『그러고 미래에 잇서서도 은봉씨는 나의 하나밧게 업는 애인일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갑짜기……?』

은봉은 불연듯 머리를 들엇다。오상억을 무시하고 눈물은 은봉의 종이쪽처럼 힌 얼굴을 주루루 흘러나렷다。

『나는 그 하나밧게 업는 나의 애인을 위하여 해월을 체포하겟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창황한 거름으로 박그로 나가려는 유불란을 은봉은

『수일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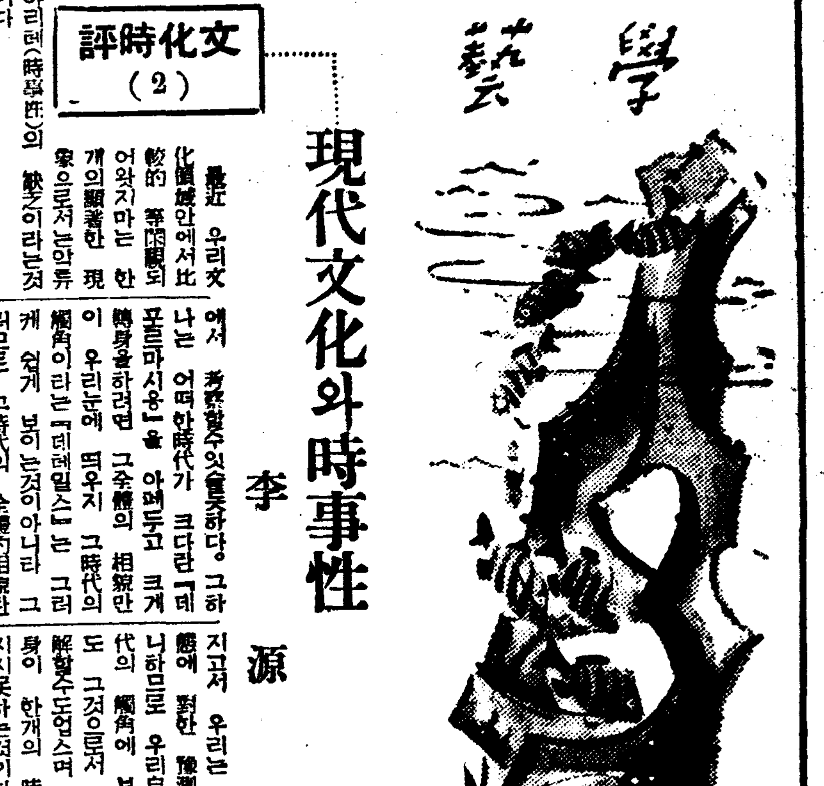
하고 불럿다。

『아아 수일(秀一)씨! 수일씨!』

유불란은 지나간 그예날 공작부인(孔雀夫人)주은봉의 입으로부터 어떠말을 얼마나 듯엇든고

유불란은『도어』의 손잡이를 잡은채 우뚝 발을멈추며 [illegible] 그러나 머정한 발거름은 도리어 그냥『도어』박그로 사라젓다。

學藝



文化時評(2) 現代文化와時事性

李源朝

最近 우리文化領域안에서比較的 等閑視되어왓지마는 한개의顯著한 現象으로서는의류아리텐(時事性)의 缺乏이라는것이다

時事性이라면 目前에 이러나는일이라는 意味에서 흔히 日常性과 混同되기쉬우며 이러한意味에서 時事性이란것이 不當한 侮蔑을 바더온것도事實이나 日常性이란 항상 되푸리되는것으로서 한개의 習慣이라면 時事性이란 항상새로운것으로서 한개의 發見이란것으로서도 이두가지는 確實히 區別되지아니하면 안될것이다.

그러므로 日常性을 만약時代의 殘滓이라면 時事性은時代의 觸角 또는 時代의 斥候라고도 할수 잇슬것이다. ──라고하는것은 日常性이란 한時代가 아무리 急激히 變轉해도 舊態依然하게 우리에게 되푸리되는 한개 生活形式──習俗──이지마는 時代性이란 그것이 한번 우리눈에 띄우는때는 반드시 그時事性가운데는 그時代의 重態가 엿보이는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文化領域안에서 왜이러한 時事性이 缺乏되엇는가?

이것은 적어도 두개의 側面에서 考察할수잇슬줄안다. 그하나는 어떠한時代가 크다란『데포르마시옹』을 아페두고 크게 時身을하려면 그全體의 相貌만이 우리눈에 띄우지 그時代의 觸角이라는『데테일스』는 그러케 쉽게 보이는것이아니라 그러므로 그時代의 全體的相貌란 마치 한개의『론스턴』와가치움직일따름이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時代의 觸角으로서의 時事性이라는것을 捕捉할수업는同時에 이와 꼿 表裡가되는 다른 한개의 側面에서 살펴본다면 이러한 時代가 제 全體的相貌를 明示하지 안는때문에우리 自身이 時代的 自覺이라는것을 가지지 못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령 한개의時事性을 捕捉하드래도 그것을가지고서 우리는 이 時代의 動態에 對한 豫測을 許하지 아니하므로 우리自身이 가령 時代의 觸角에 부드처다고하드래도 그것으로서 곳이時代를 理解할수도업스며 따라서 우리自身이 한개의 時代的自覺도 가지지못하는것이다. 그러고보니지금 우리에게 가장 重要한것은 우리가 時代的自覺을 가지지못한다는 이 一事이다. 事實 우리에게 確乎한 時代的自覺이잇다면 우리文化工作이 어떠한意味에서든지 多角的인 現代的觸角에 안부드칠理가업슬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여러가지 文化領域을 살펴보드래도 우리는 거기에서 살어잇는 現代의 感觸을 느낄수가 업다, 아니 이世紀가 먼저世紀의 ……되는 類에 그저 因襲과 姑息과 逡巡하는 한개類似的狀態에 머무르고잇는것이 事實이다.

그러므로 가령 요새 東京文壇에서 素材文學이라는말이 流行하는모양이나 素材의 蒐集이란 한時代의 村料는 될지언정 그素材에서 그時代의 動向은 指示되지안는것이다. 그러나 우리 文壇의 作品을 다시 생각해본다면 創作에잇서서나 評論에 잇서서나 無多한 日常性은 取扱되나 새로운 時事性이란 일직이 한사람도 着眼하지안흔것이 事實이다.

일직이 傾向文學이 旺盛할때는 모든 文學的情熱이 時事性의 追隨에만 汲汲해서 甚하면『토픽』을 좃는것으로 是事를삼는傾向까지 업지아니하엿스나 時事性이란 決코『토픽』의 拾綴이아니라 실로 時代性의 解角이란意味에서 우리文化人의 不絶한 關心의 對象이 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더구나 現代와가치 우리自身이 時代的自覺을 가지기어려운때에는 이러한 時事性의 關心에서 도리혀 우리의時代的自覺을 차즐수잇는것이며나아가서는 오늘날의 우리 文化的成果가 現代와가치 複雜한時代的反映을 싼채로 어제의 그것과 區別되며 또한來日의 그것과달른한개『모뉴멘트』가 될수도잇는것이다

八道俗談 方鍾鉉

(八十五) 개구멍으로 통량갓을 굴러낼놈

【註解】 개가 드나드는구멍으로는 統凉笠을 굴려낼놈이라하니 卽 巧妙한 邪詐의 手段을 가르친것이르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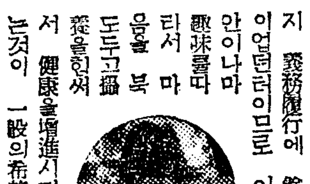
(八十六) 개구멍에 망건치기

【註解】 開川이란것은 말총으로 뜬것이니 머리에 올리써서 頭髮이 헝크러저내려지믈 防備하는것이다 이것으로써 개구멍에 처논는다함은 그것은 貪欲이 도리어 損害를 가저오게되믈 말하미라.

(八十七) 개눈에는 똥만 보인다

【註解】 어떤先入主見이 잇스면 널리 생각을 못하고 늘 自己主見을 固執하이니 卽自己가 嗜好하는物件 或은 그主見으로 一律的解釋을 내리우고 다른見解或은 다른角 度를 보지못하믈 이르미라

나의 無休宣言 —밀렷던語學工夫를實行



沈亨弼

放學이 어서되면하고: 기다리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지지안겟습니다마는 時히 工夫를하겟느냐고 물으시는데 對해서는 實로 說明하기 짝이업음니다. 지금까지나는 여름 放學을 그러케 有效하게 利用해본例가別로업는것도 事實이지만 또 요새의放學이란 前과달라서 머리로 잘리우고 꽁지로찌히여서 不過二十日밧께안됩니다. 그中에서도 처음 며칠은 緊張이 풀리노라어름어름 그저지나 갈것이고 나중 며칠든다음學期의準備心理로 焦燥한가운데 보내게될것을 豫想하면 정말 利用할수잇는 日數는 짧두어 週日밧께안되겟스즉 이동안에 무는 톡톡한 일을하겟습니까? 俗談에 매달구 치면 안맛는사람이 업다는格으로 이동안이나마 무슨 講習 또는視察等 當局으로서의 命令이나잇다면 甘苦莫論하고 遂行하게될는지 모르긋지만 그러치안흔때 누구나 모처럼 어든이 짧은 放學을 무슨義務的 工夫乃至行事에 自進할 사람은 別로 업슬것가틉니다. 차라리 平素에는 여러가지 義務履行에 餘念이업던터이므로 이동안이나마 趣味를따라서 마음을 북도두고攝……

旅行을할 事情이 된다면 藥水에가서 胃病을고치고 십고 둘째로 아무데도 못가게된다면 同志作伴하여 자주 郊外로 나가서『스켓취』工夫를 할作定입니다 萬一에 그것도 如意치못하게 된때 房안에 잇게되면 내가 가장 無識함을 恨歎해오던 朝鮮史槪要를 工夫할 作定입니다 그러고도 餘暇가 잇다면 十餘年前에憨心만가지고 사두엇던 語學冊을 또한번 읽거볼 作定입니다

富選漢詩

滄東考選

題 觀海

押 尤韻部

選外佳作之三 碧城郡海城面三幹里 尹俊模

朝宗江漢競奔流
天地中間第一洲
風送殷臣居北日
月明齊士蹈東秋
渺然漂粟浮生歎
穩不揚波聖運休
舟水君民思廣濟
恨望無際動閑愁

詩壇

生六臣의詩 (四)

滄東散人

梅月堂金時習이 한때에는中興寺에 寓居하엿섯다 매양비오後에 山에서흐르는 澗水가벌을때를만나면 白紙를折斷하여 百餘片을만들고 筆硯을가추어 물결이가장急한곳을 가려안아 沈吟하여 詩를짓되 或律詩、或五言古詩를 紙片에써 물에 떠어보내는만 一邊은짓고 一邊은쓰고 一邊은떠여서 그紙片이다업서진後에는 放聲大哭하고 돌아와섯다 그詩가몃百首이며 그詩에무스돗을썻는지 모른다 師友名行錄에 公의事蹟을썻스되 公爲人、豪邁英發、簡率勁直傷時憤俗、氣鬱不平、不能隨時低仰、遂放浪形骸之外、域中山川、足跡殆遍、(中略)世間風雲泉石花果鳥獸人事之是非得失貴賤死生、至於性命理氣陰陽幽顯、一寓於文章、故其爲辭也、水湧山聳、地包海涵、神唱鬼酬、間見層出、聲律格調、不甚經意、而思致高遠、迥出尋常(下略) 이를보면公의性格과 才藝를大綱알것이다

晩年에는 錦幅一讀으로 端宗大王의靈魂을招하여 鷄龍山東鶴寺에들어가서 招魂閣을짓고 四時에焦果로 祭享하여 王의靈魂을 慰安하다가 鴻山無量에가서入寂하니 年이五十九라 肅宗朝에 崔錫鼎이 上奏하되 端宗遜位한後에 士人金時習이 跡을晦하고世를遁하여 그文章과節行이卓卓한故로 그後에名賢들이 일컷기를 今世의伯夷라하니 特別이贈職하여 써忠義를奬勸하소서하니 肅宗께서 特히 吏曹判書를 贈職하시고 諡를淸簡이라하니라

그渭川釣魚圖에쓴詩에하엿스되

風雨蕭蕭拂釣磯、渭川魚鳥自忘機。如何老作鷹揚將、空使夷齊餓採薇。

이詩는기롱뜻이잇다 그때는申叔舟가 晴雞功臣으로世祖의寵愛를바들때다 公의入京함을듯고 가만히公의留宿하는집主人을시켜술을勸하여 醉眠하기를 기다려 轎軍을보내여 叔舟의집으로 떠메여왓섯다 公이술이깨인後에 그見欺한줄을알고 곳 일어나가라하니 叔舟가公의손을잡고 말하되 悅卿이 어찌한말이업는냐하고 因하여 姜太公의 渭川釣魚圖一幅을내여노코 題詩를 써달라하므로 公이不得已 이詩를썻스니 이는叔舟를嘲笑한詩이다 大蓋叔舟를姜太公에比하고 自己를伯夷叔齊에比한말인데 風韻이逸宕하고 意思가渾圓한가온데에 스스로毅然不可犯할氣節을뵈인것이다 叔舟가이詩를보고 아마內心에떡이나 부끄려하엿슬것이다

金剛山萬瀑洞에 들어가보면 石壁에梅月堂題刻이잇스니 『樂山樂水人之常情而我登山而哭臨水而哭其無樂山樂水之興而有此哭無窮歎悲夫』라하고 傍書로 『己丑仲秋四十四歲翁八入金剛題』라하엿다 至今까지보는사람으로하야금 慷慨無量한感想을禁치못하게한다

◎오늘의米國美術 ②

社會派! 이派는現代生活의 明明白白한 事實들을 表現할『씽볼』과『알레고리』를發見하려는데特徵이잇다 寫眞(上)은紐育出身『일렘·그롭퍼ー』의『最後의農年』다 (寫眞下는 市伽古出身『미첼·시굳린』의『避難民』으로서 鐵道沿邊에 屯居하고잇는 失業群의放浪群을 그린것이다

船遊道 (3)

吳河潤

銷夏隨筆

배를타고 바다나 江우에 떠다니면서논다는것은 어떤境遇를莫論하고 實로愉快한일이다더구나 요즘처럼 이러케酷甚한 더위를 조금이라도 덜기爲하여 水泳兼『뽀ー트』를타고 큰江을 오르나리는것은 保健上으로도매우 利로운『스포ー츠』가아닐수 업다。배를띄워 閑暇히 낙시를 담그고 고기를 낙는것도 別다른 興味가잇거니와 가까운벗과 더부러 風에휘날리며 배우에안저 麥酒병을기우리는것도 通俗的 行事의한가지에는 틀님업스나 滌暑的要素가 豐溢한노릇이리라다。

(江)

京城府民에게는 漢江이잇고平壤에는 大同江이 흐르고잇서여름하철을 한결 더위에서求해주는지라, 저 시퍼런물결만 바라보아도 얼마쯤 땀이 기어드는듯한感이업지안타 船遊로는 漢江보다도 大同江을 치는모양이다。遊船을타고 牧丹峰을 바라보며 淸流壁아래로 거슬너올나가는것은 지나가는길손에게도暫時 발을 멈추게하는 터이지만 바월島라 능라島라 實로 大同江은 이름그대로 浿城에서도웃듬되는 자랑거리라 하겟다 더구나 우리가 漢江에서 보기어려운 매생이의 輕快한 맵시는 涼味를 한층 加해준다고나 할가 이漢江의 夜景을 내 즐길이 玩賞한 일이 업스되 漢江─그도유달니 달이나밝은밤에는 더위에 시달닌 우리細民層에所屬된分子로서는 船遊를 仙遊라고 誇張하는데도 一理가업지못할것을 누구나 알수잇스리라, 채마르지안흔 水泳服을 입은대로『보ー트』우에서 黃昏의人道橋를 바라다보라! 건너가고 건너오는 電車의불비치 아직도 희미하게 진실로 희미하게 새여나오고 점점 걷거가는 쇠다리에 形言할수업는……

(蘇)

도 三日前도 그날……만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新聞……이엇섯다。

東京의 ……를 세상스럽게 여기리用하는 ……秋七月 달밝은밤에 江을오르고나리면 잔을기우려 詩興을돋두는 배스노리는 高尙한趣味에틀림업스나、좋은時節의 旣望으로 만 여이고 도한으로 너무나自然을요되게하는따위의 低俗한享樂을 맘대로하야 다리위에서소풍하는길손들에게 갑끔 역한感情을 어르키게하는行動은 彼此에 살가는것이 조素까한다。여름이면 어두운밤을 利用하는不良의 同伴者가 적지안케 배를저어 上流로 上流로 기어올나가는 모양이라니 이또한 엿지警戒할배 아니리오。

隱의漢江이라는등 新聞은 每日가치 이漢江에서의 溺死를 報道하기에 餘念이업다。果然 우리는 水泳에 船遊에 이漢江을끼고 한여름을 지내는동안 만흔犧牲者를 내고야마는것이지만失手하지안토록 各自의注意가 必要한것은 勿論 어두운밤『뽀ー트』를 젓는데도 그故意的行爲에 特別히 조심해야 될줄안다. 女子의『뽀ー트』에는 웨그리關心을가지고 따라다니는 짓구진 패들이 만흔지 이것은 外觀上으로도 別로 아름답지못한光景이 아니라『뽀ー트』가 전복될危險가잇서서 매우

(危)

險한짓이 아니면아니다。너무甚한者에이르러서는 그程度如何에따라 當然히 取締하지안흘수업는일이며 또 辰蔽以上의 勝蔽이 각금 江바람을타고 점잔은친구들의 나츨더웁게한다 末伏도 넘어서면 머지안허立秋節이라 아친저녁으로 한낫의 더위를 잇게하는 바람을타고江으로 뱃노리의 誘惑을 밧지나 안흐려는가!

(情)

錨가 깃드릴때 그다리 기둥 기둥에 켜진 電燈불은 웨그리도 感傷的이든가! 아 밤의漢江이어!

亦是 十四五年前일이다 夏季巡講을마친 우리 一行은 新義州寺主催로열린 歡送會로 解散을하고 溫井里와 長箭에서 週餘를 목으며 놀게되엇섯다 우리가 東西로 헤여지기 이틀前밤인가가 바로 秋七月기망이엇다。港口에사는 몃몃친구의 알선으로 몰결잔잔한 東海上에서 하로人저녁 愉快한 뱃노리를 가지게되엇던 記憶이 아직도 새롭다。東海岸의 長箭港이라면다시說明을부칠 必要도 업거니와 이날밤은 멀니 바다우로 떠오르는달도 유별나게 크고 밝근데다 우리의저어가는배가 港口어구에까지 나갓슬때 우리는바다와달과술에 갑북醉하야 海岸에서 소리치며 흰두른는K君의 손길도 다만 아릿하고 다만아득할뿐이엇다。叢石亭도 鍾浦叢……

앙드레·모로아 翰林院會員으로

世界의귀

【巴里發同盟通信】『바이론傳』『쉘리ー傳』『디스레ー리傳』及『에드워ー드七世와그時代』等 著者로써 有名한『앙드레·모로아』氏는 多年英佛兩國文學交流에 바친功績이 報應되어 過般故『르네·두미크』氏의 代身으로『佛蘭西아카데미』會員으로薦擧되엇는데 얼마前 氏의 아카데미會員記披露會가『루불랑』大統領夫妻 및필립스駐佛英大使 웨ー간트將軍等出席下에 盛大히開催되엇다 當日綠色아카데미ー會員服을입고 駐佛英國大使필립스氏가보낸『아카데미샤양의劍』을佩用한『모로아』氏는 新會員으로서의人事와 演說을翻籍하게하엿는데 다음으로『쉐를리앙』氏는『모로아』氏의인사에 答하여 氏의業績을 讚揚하여 다음과가튼演說을하엿다

『閣下는 現代佛蘭西靑年을警戒하여 英國은理解에 困難한 神秘의나라라고햇다 그러나閣下의 多年文學을通한 英國紹介가寄與되야 每年數千名의靑年이 우리의文化와 親近할만을으로『도ー바』를건너 오게되엇다 英國에對한著書는 數多하나 그中에서도 閣下의著書는佛蘭西뿐아니라『영글랑·색손』諸國에 輪灰되어엿다 閣下야말로 英國의우리들에 佛蘭西人도 또한英國의心理에徹하고할수잇슴을證明한 張本人이어 閣下의 이러한英佛의 知的協力은……

漢詩募集

滄東考選

題 苦熱

押 徵韻部 (古詩圈處)

期限 八月十五日 (漢詩擔當)

「코페르닉스」 國籍으로獨波對立

實로 크다ー

【와르소ー發同盟】近代天文學의 父『니콜라스·코페르닉스』는 普通波蘭人으로 알려저잇는데 얼마전 그國籍에對하여 獨、波兩民族이對立 드디어 波蘭의小邑『비도고시츠』의法廷에 提出되어 非常한 注目을끌고잇다 『地球는 廻轉한다』라고한所謂『코페르닉스』原理의 發見者인『코페르닉스』는 通說에依하면 一四七三年 波蘭의『토룬』市에서나서『크라우엔부르그』에서 結婚한것으로 되어잇다。그런데『포메라니아』의 獨逸少數民族이 居住하여잇는 곳에서는從來『코페르닉스』는 獨逸人이라는 傳說에 基因하여 有數잇는 獨逸書를『獨逸文化의 가장傑出한 代表中의 一人』이라고 칭하여 發行해 왓는데 波蘭政府는 最近에이르러 이獨逸書는事實을捏造한不法行爲라고하여 그發行을禁止한데서問題가紛糾해진것이다 時局에 藉口하여傳統을 無視한 波蘭政府의行爲에憤激한 獨逸少數民族은『비도고시츠』法廷에『코페르닉스』誕生地再審査를要求 今回의訴訟에 이르게된것이다

新刊紹介

▲朝鮮の敎育硏究 八月號 發行所 京城府黃金町五丁目 京城師範學校附屬小學校內 朝鮮初等敎育硏究會 振替京城一三三七六番 定價四十錢 送料二錢

▲時光 八月號 發行所 京城府淸凉里町一 時光社 振替京城五七四三番 定價十二錢

▲月刊野談 八月號 發行所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 月刊野談社 振替京城一六三三二番 定價二十五錢 送料一錢

▲World Digest 八月一日號 發行所 東京市牛込區原町三ノ六一 ヘラルド雜誌社 振替東京一三八二二番 定價二五錢

結核 虛弱體質

劃期的治療劑

ハツモン コメット

本劑는特殊한酵母及數種의非病原菌에서어든注射藥으로서本劑中에는活性酵素、高單位의비타민B、비타민A.D.E、아미노酸、카루쿠、마구네슘、燐及有機性燐等을含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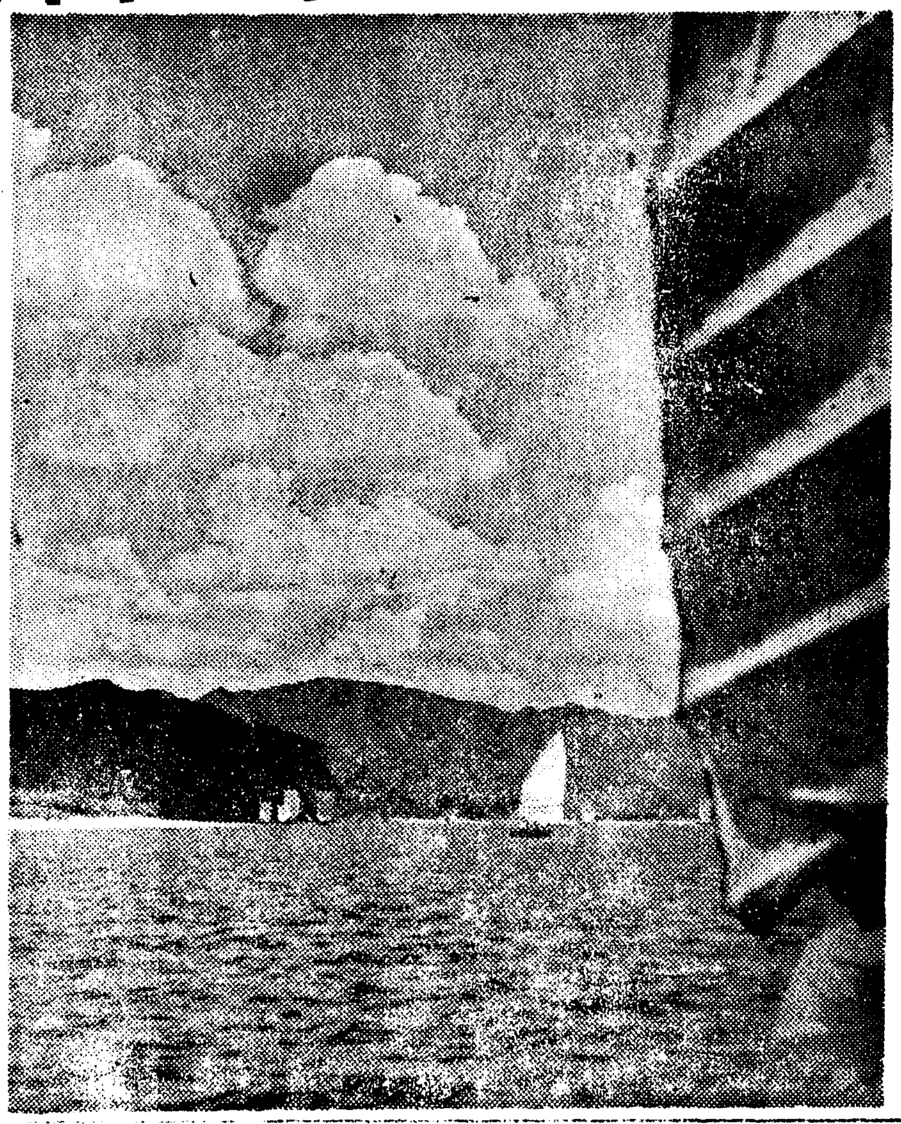
結核性諸疾患・病後衰弱
虛弱體質・腺病質兒童
에對한가장合理的이며治療와榮養을兼한本邦嚆矢의健康注射劑!

大學・陸海軍・滿鐵其他各官公私病院의採用品

適應證
肺結核、肺浸潤、肺尖加答兒、肋膜炎、腺結核、腎結核、膀胱結核、慢性淋疾、小兒腺病質、一般虛弱體質、榮養及食慾增進等에卓効함

包裝
皮下用〇、五cc 一、〇cc 二、〇cc
靜脈用五、〇cc 一〇、〇cc
各一〇管入、三〇管入有함

大阪市東區今橋二丁目
株式會社 黑田藥品商會
支店 東京市本町三丁目



鴨綠江

鴨綠江節로 兒童走卒의입으해까지 오르나리는 鴨綠江은 白頭山을分水嶺으로하여 豆滿江과함께東西로난우어 滾滾浴浴히 千里길을흘러 黃海로드러가니 이江의流域에는 이쪽저쪽에異國情調를가득이실어 보는사람으로하여금 千變萬化의온갓생각에 잠기게한다 上流의後水(메묵)흘리를 비롯하여朝鮮의 萬里長城趾統軍亭의景勝 어江岸의여기저기 點在한 群小都邑의 景概야말로 筆舌로다할수 업는것이다 이環境을가진 江界는 美人의出生地로 또한有名하다 白馬의月 龍岩流의 景物도 그럴듯하거니와 河口의多獅島는 아프로鮮滿과 北支와의 經濟關係에잇서서 크나큰 役割을 約束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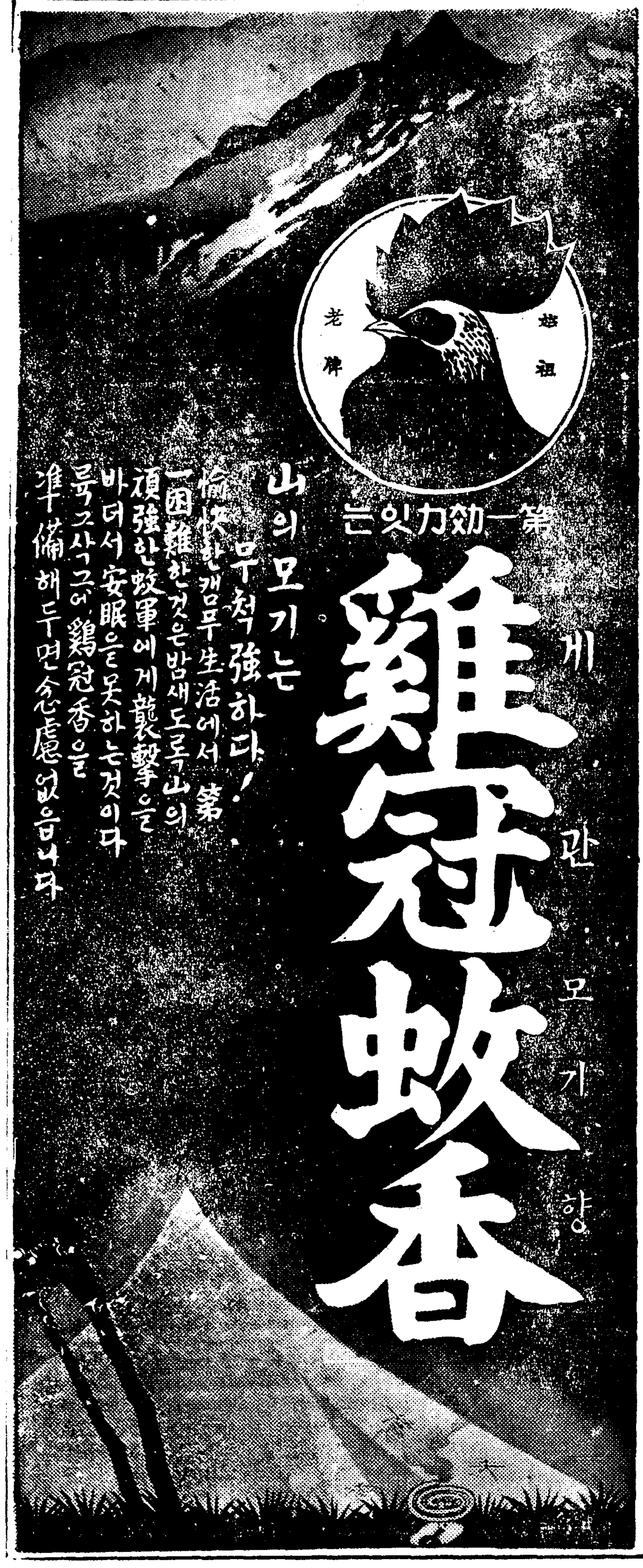
海印寺溪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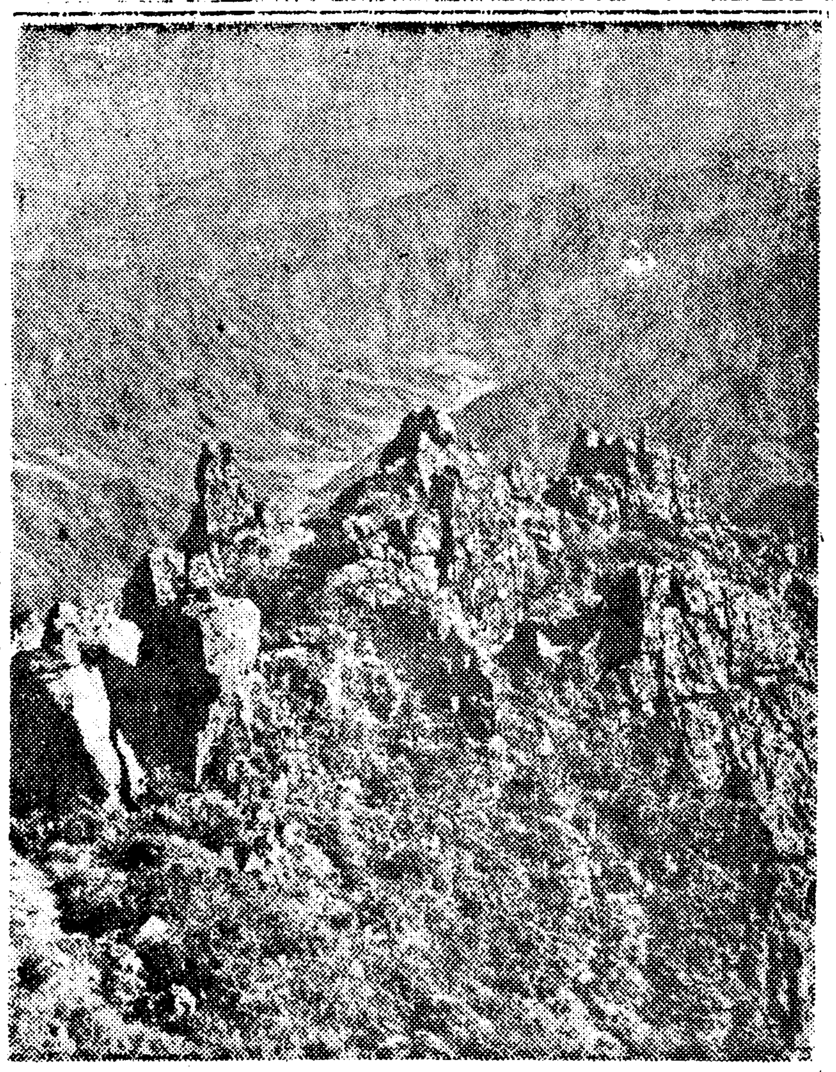
慶尙의名峰 伽倻山의南麓에 大本山海印寺가잇스니 이절을中心으로한 浮域은 山嶽美、溪谷美、森林美、伽藍美의 極致로서 有名하다。 大邱에서 六十餘粁、坦坦한大路로 自動車를달리어約二時間이면 紅流里에 이르게된다 여기서山門까지 約四粁의參道는 伽倻川의溪流에沿하여걸어가면 山을돌고돌아、저有名한溪谷의美、森林의莊嚴한崇高美를 마음껏맛보게된다。 寺院의境域은伽倻山連峰으로 둘리운山明水麗한곳이니 殿閣堂塔의輪奐美는 보는者로하여금 다만驚嘆의눈을흡뜨게할따름이다。 또한 가을한철丹楓은 詩人墨客의興趣를도두게한다。 海印寺는 山嶽美、溪谷美로만 有名한것이아니라 또歷史的으로 有名하니、그創建은 千百餘年前新羅哀莊王二年僧順應이 開基하여 其後重建하기六次 現在의 堂宇는 大寂光殿外十五六에 不過하나 山內에는 極樂殿、藥水庵等 十餘의 屬庵이잇스며現在法燈을 직히는 僧徒數가三百이나된다。 저有名한 八萬大藏經板木은 大經閣에 保存되어잇는데 其數八萬一千二百五十八枚나되며 高麗高宗때에 刻版한것이라한다

惡疫豫防

仁丹은强力한
殺菌作用이잇서
口中과胃腸內에侵入하는
各種의危險한 有害細菌을殺滅하야 이것의發育을
防止、腸의抗病力減弱、榮養障碍、身心過勞로이러
날 惡疫의豫防과保健에 仁丹은東亞의靈藥으로서
賞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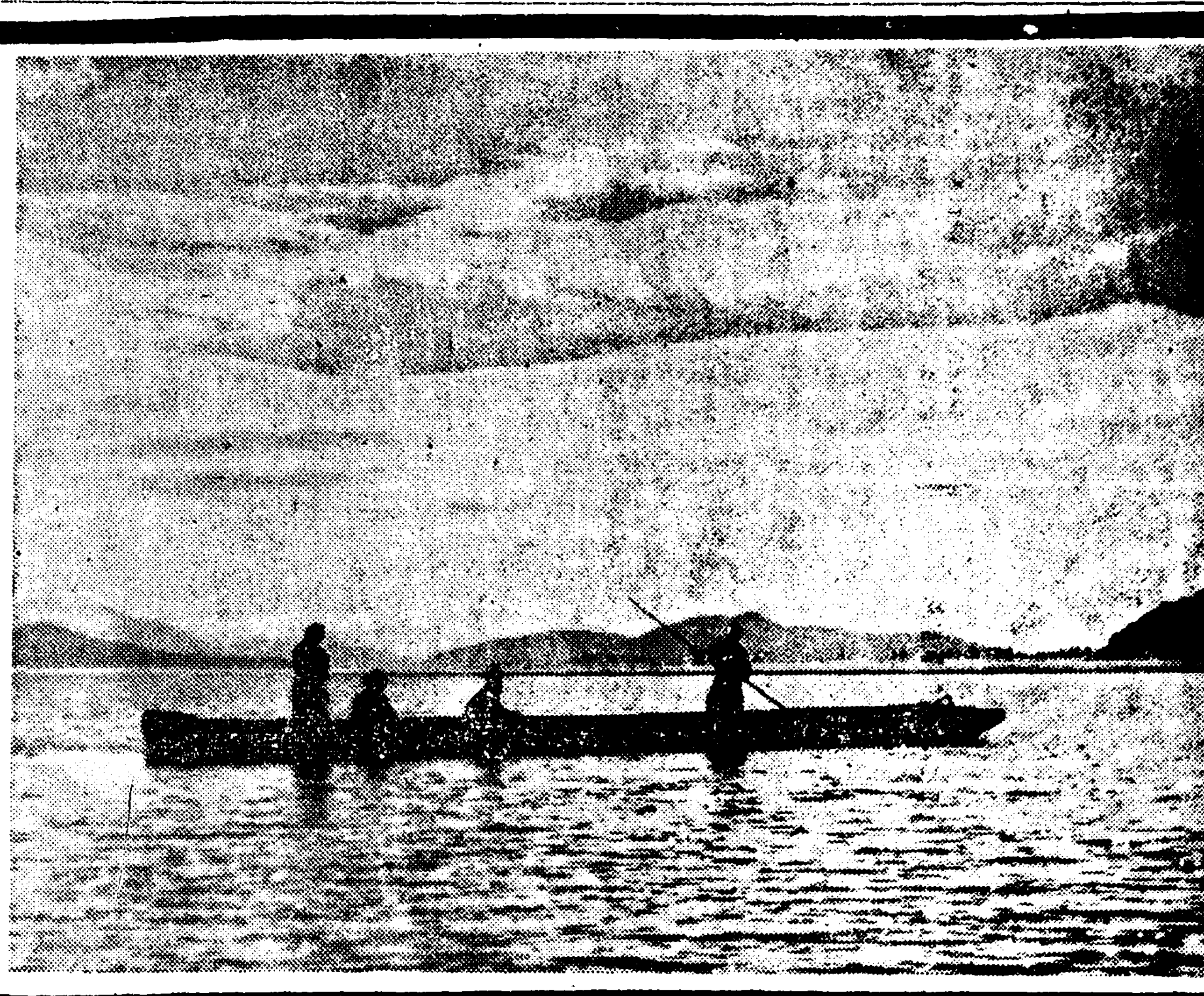
納涼名勝地와有名商品推奬





智異山 (全南、慶南間介在)

半島四大名山의 一로서 金剛山의奇岩怪石이 亂立한 山岳美에比하여 智異山은 鬱蒼한原始林에차여엿서 莊嚴하고 崇高한맛을준다 이原始林에 茂盛한 多種多樣의植物은 植物學上의 貴重한存在이다 屬食貴로 五郡에亘하여 歷史上許多한 傳說을 가지고잇스며 山中幽靜之處에는 優雅한古刹이 散在해잇서서 納涼地로서도 莫上일뿐아니다 山河를跋涉하는 健脚客의 夏節마다 雲集하는곳이다。從來智異山에는交通이 不便하엿스나 最近合城、晉州間에 鐵道가開通되엿고 自動車의連絡도잇서서 三四日의短時日로서도 探勝하게되엿고 山中에는 處處에別莊이散在한다



花園의洛東江

慶北의雄都 大邱의名所 達城公園前에서 택시-를 잡어타고 南向大路를달리기 오십分에 納凉地로알려진 洛東江岸의 花園에이른다 洛東江七百里 흐르는 곳마다 佳景을이루엇지만 이花園에 이르러서는 最上의 佳境을이루엇다 보라! 얼마나시원한 風景이랴 長江의涼風은 暑炎을 씻처버리고도 남음이잇슬게다

タンゴドーラン (탕고도랑)

어떤顏色인분이라도
生生하게健康美빛나는
魅力의近代化粧料!

株式會社・[illegible]本舖
宇野達之助商會・東京・大阪

在滿朝鮮人實數 百四萬八千餘名

日支事變後十一萬六千이增加

【奉天】치안부경무사(治安部警務司)조사에의하면 소화십삼년십이월말현재의 재만조선인은 백사만이백여명인데 소화십이년칠월지사변이일어나기전에비하면 실로일년반동안에 십일만六천명이 늘엇다 이비례로보면 소화십사년칠월말현재로는 백십만을돌파하리라한다 그리고전만주의총인구는 삼천팔백삼십만여명으로 민족별로보면 다음과갓다

民族	人口	千分比
滿人	[illegible]	[illegible]
日本內地人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	[illegible]	[illegible]
其他外人	[illegible]	[illegible]
總計	[illegible]	一〇〇〇·〇

精白米調製를禁止 七分搗米食을勸奬

食糧調節과保健衛生上有利타고 慶北道서 率先管下에嚴達

【慶北支社發】경상북도에서는 오일부로 전도내각군수 경찰서장에게 【금후백미의찌는정도를 저하시켜 칠분정미로하라】는 통첩을발하엿다 그리고 이의실행방법과 그철저를기하고저 단연백미제작을 배격하게되엿는데 이 제도실시는 전조선에서 경북이 처음시작하는것이라하며 이는영양보건상으로보아도 가장긴절한것이며 일면소비상에도 중대영향이잇스리라하여 일반은 그실행에 어김업기를 바란다하며 실시는발표당일부터 시작하기로하여 현재재고백미는 어쩔수업스나 금후제품은 일체백미를 허치아니하며 위반하는자는 단연코적발하여 지시사항위반등 처벌규칙을 적용하리라한다

칠분도백미식용장려에 관하여 오일부로 발동한경상북도통첩내용은 다음과갓다 미까의양곡의제외반미(飯米)의 수급조절에대하여 먼저 통첩한일도잇거니와 각기그에적절한조처가잇슬줄생각하는바이나 이제 한층더 철저를기하고저 백미도정도(白米搗精度)를 저하시켜써 소비미의공급을 증가시킴과동시에 일면보건우생상의향상 국민체력의증진을 도모하는의미에잇서 좌기에의하여지급조처할지며 일반에대하여 주지철저와실행화보에 유감업기를 기하기를명함

記

七分搗白米(胚芽米를包含함)의 食用奬勵

▲實行方法

一、現在精白米業者及 販賣業者의 手持品은 不得已하지만은 今後業者의 精白에 對해서는 必히 七分搗으로하도록 指導督勵를加할일

二、前項의實行을 完全히하기爲하여 業者間에 協定시킬것

三、때때로 精白米業者及 販賣業者의 工場及店舖를 實地督勵하여 前項협의事項의 必行을 期케할일

四、韓白米에 對해서도 米商等에依하여 七分搗를 出市하도록 督勵할일

七朔間火藥事故 十七件을突破

【春川】화약사용하는 광산도로공사 항만수축공사등지에서는 항상 취급부주의로 사고를일으켜 만흔 중요인물의생명을 빼앗는데 강원도내에서의금년일월부터 칠월말일까지의화약사고를 보면 총건수 십칠건으로 사망자사명 부상자 여섯명인데 이외에와 사포발로 십일명의 죽사한 대불상사도 한건이 끼엿다한다

北支에 金密輸頻繁

【奉天】정부의금집중 국책을배반하고 최근만주에서 북지방면으로 금밀수가성행됨을 탐지한 경찰당국은 아연긴장하여 대활동중인데 이로인해서 봉천, 무순등지의 금밀수업자는 원금의구든 경계선을 돌파하고 무난으로 메정을아니치못할 위기에 직면하고잇는데 만주서하든 금밀수는 사실상 사형에 의하여 ... 로 일확수가성행되는모양인데 이로인해서 통천경찰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취체하야 엄중경계중이라한다

旱害를克服하라

全北道에서管下에要項을指示

【全北支社發】천고미증유의 한발은 갈수록심각화하여 농가의 피해는 막대하므로 도당국에서는 개생지도를강력히하기로하고 지난사일 정산업부장명의로써 관하각군수에게 농가한해극복지도방책에편한 통첩을발하여 좌기각항을 철저적으로 격려하여 이로써 한해를극복함에 매진하기로 하엿다는데 그요항은다음과 갓다

一、農耕地大面積耕作者減反耕作奬勵
二、農家雇人使用廢止
三、天水畓地自家採種奬勵
四、婚葬祭費徹底的節減
五、市場往回數制限
六、儀禮的訪問往來中止
七、點心持參 冷飯食奬勵
八、季節的衣服新調嚴戒와 家畜賣節減勵行
九、迷信打破
一〇、藁製靴履止革靴『게다』(下駄)勵行
一一、旱害罹災地에는 禁酒禁煙勵行
一二、宅地利用徹底化 自給肥料增產
一三、家畜放牧防止
一四、麥作收良增産
一五、節約更生計劃再檢討
一六、月例會勵行
一七、[illegible]

(南船北馬) [illegible] 대구경찰서에서 그정체를 구명하기에 고심하든중 ▲각각 비밀리에 수입한 여자 십오명이 드러나 칠은 대구서에서는 그만 계자를소환하여 엄중 훈계하엿는데 ▲그들은 대개가 유한매담 카페여급 그리고 양가의영양 라이괴스트등이 엇섯다한다(大邱)

江中線敷設促進

江界發展期成會에서

【江界】만포선철도전통을 계기로 오지무진장의 자원은 전폭적약동을일으켜 지금에는 강계중강진(中江鎭)간 강중선(江中線)철도부설의 필요를 절실히느끼게되엇다 이에대한 구체책은 얼마전부터 당지 각계인사사이에 논의가잇서오든바 지난칠월이십사일에열린강계발전좌담회석상에서 정식으로 의론이대두된후 수삼차 회의를거듭한결과 강계발전기성회(江界發展期成會)라는 『강중선철도속성운동과 독로강대교(禿魯江大橋)공사촉진 기타 강계발전을위하여 진력한다』는 목적의단체를 만들엇다 동단체의 진용은아래와가치강계실업계총망라한 기관으로 지난오일강계읍회의실에서열린 역원회석상에서 결의된사항을보면

▲당국에 진정키위하여 강중선 연도의 천연재원과 농작물을 수짜적으로 조사할것

▲강중선 철도부설운동이 논의될 이달중순 평양에서 열리는 서선상공회의연맹(西鮮商工會聯盟)에 대표를파견하여 서북조선각관계단체와 결합하여 이촉진운동을 일으키게할것

등의 계획을세우고 다음목로 강교연관도로 토지매수에편한토의도잇섯다

이강중선이란 강계로부터 중강진에이르기까지 강계, 후창, 장성(江界, 厚昌, 慈城)삼개군에 뻐처 연장오백리 그연도에는무진장의 광산물 목재와 농작물이 만히산출되며 중강진대안만주국임강현모아산(臨江縣帽兒山)일대에도 상당한재원을가지고잇다 때마침 세계적대사업인압록강수전(鴨綠江水電)의 방대한공사가 급템포로진행되는이때 이철도의사명은 중차대한의의를 가지고나서는것이다

江界發展期成會役員及會員

會長 足立長吉
副會長 金泰洙
幹事 今泉吉一 濱邊浩哉 千葉丈夫(常任) 落合二三(常任) 安部繁雄 阿野慶吉 劉相禹(會計) 金聲鉉 崔德瑞 小松啓永 橋本綱太郎 黃宗河 金龍宗 劉基貞
會員 百餘名外十九名

濟州一帶植物

植木博士再調

【全南支社發】전조선에산재한식물종류는 삼천삼백종 제주도에만 일천삼백여종의 식물이잇다함은 본보에 기보하엿거니와 총독부 기사요수원(水原)고등농림학교교수인 식목박사(植木博士)는 수년전 제일차로 제주도식물을채취조사한일이잇섯스나 아직 미진한점이 만흠으로 금번에제이차로 제주도식물을 조사하고저 팔월구일에 수원을 출발하여 동십일일부터 이십삼일까지 한나산(漢拏山)을위시한 전도를답사하여 전반적으로 식물채취조사를하고 이십사일에 귀임할예정이라는데 그로인하여 제주도식물은 더욱우리와가깝게 소개될터이라한다

阿片栽培者網羅

防犯座談會開催

【城津】성진아편재배조합(城津阿片栽培組合)에서는 칠일오전열시부터 성진서무도장에서 관내 주재소수석과 백여명조합원 참석하에 평의원회를 개최한다음 오후한시부터 전매국 함흥(咸興)출장소장 도위생과장등이 임석하여 이지방에잇서 범죄의 온상(溫床)이라고하는 아편령위반에대한 방지좌담회(防止座談會)를 개최하고 장시간에 걸처 격의업는의견을교환하엿다고한다

警戒할軌道納凉!

各線에서犧牲者續出

湖南線長城에서 船商二名이慘死

【全南支社發】육일오후여덟시오십오분경에 호남선대전(大田)기점일백사십구키로인 전남장성군북이면원덕리(長城郡北二面院德里)에 목포(木浦)행 제육백오호열차가 이르럿슬때 『레일』을 벼개삼어 청년두명이 잠자고잇는것을 발견하고 기적을 울리엿던바 놀래깨여 이러낫스나 속히 피하지못하여 두명이 가치참사하엿다는데 그들은 연상사로주소성명은 다음과갓다한다

▲長城郡北二面四街里
死 [illegible]
死 [illegible]

雙浦鐵橋附近서 잠자던靑年轢死

【城津】작보도 그러케 업섯든 지하행열도선로에서 자다가친 국행을한사나이 성진시내 쌍포정(雙浦町)강원홍(姜元興)(二一)이란청년은 칠일 새벽더위를 피하여 쌍포철교(雙浦鐵橋)부근 선로에서자다가오전 네시쯤이곳을지나는나진(羅津)행 급행렬차에치어무참히죽어버렷다

昌原孔子廟怪盜被逮

【馬山】기보-창원읍내(昌原邑內)에 잇는 공자묘(孔子廟)안에 삼백오십년전의 보관하여둔 동품(什器)을 도난당하엿다함은 본보에 보도된바어니와 이급보를접한 마산서에서는 이(李)박(朴)소(?) 사법수임아하 전(田)심택(深澤)등 네형사대가 현장을검증하고 즉시 각방면으로 엄중경계망을 느리고 범인체포에 긴장하고잇던바 오일새벽 동사건의진범인은 이(李)형사의손에 체포되어 방금준렬한취조를 밧는중인데 그범인은 합천군률곡리(陜川郡栗谷里)출생 [illegible]이라한다

火田民의指導圃

擴充徹底策을咸南道서嚴達

【咸南支社發】함남도의 화전민지도(火田民指導)에수요기관이되는화전지도포(指導圃)에대하여금후 형식적인것보담도 좀더실질적인 지도점에 입각하여 금년도부터 농림국에서는 아래와가튼 방법을관하각군에 통달하고잇는데 화전민지도안으로는 가장수요한요항이라한다 비교재배(比較栽培)즉일품종에대하여한묘씩정하여 보통종자와 우량종자와의 비교 첫재우량종배급 장려로서 될수만잇스면 추위에견딜수잇는 장려할것이며 다음도포의를하여 그우량한종자를선전할것 그리고 시국에가장 적당한 작물 즉아마(亞麻) 『홋푸』와가튼 특수작물을 적극적으로 재배할것등 도내삼십삼개 소지도구에대하여 칠월 시도산업부장의 명령으로 그지도포의 철저한 성과를엇도록 엄달하엿다한다

木浦自轉車大會

盛況裏에無事終了

【木浦】누보=본사목포지국주최로 전조선남녀자전차경기대회는 예정대로 지난육일오전아홉시부터 목포공설운동장에서 본지국의 전부민의고대하던 경기의막이열엿섯다 당일은 염오구름이 차일이되어 직사하는폭염의일광을막아주어서 자연의납량이되엿슬뿐 아니라 모리도착남이업든 규율파전비와 해오청정한 사실(?)선수의 외세에 오륙천명의관중은 기분을캐고경을하여엿는데 우리가튼 박수속에서 우승배와우승기를바든선수는 목포공수선수(木浦楽陵)군산재조철(群山蔡鍾鐵=優勝旗) 평양 김은하(平壤金銀鶴=同上) 조치원장기석(鳥致院張基碩=同上) 대전길룡선(大田吉龍善=同上)의 제군이며 이날에 더욱 관중으로하여금 환호갈채를 자아내게 한것은 백전백승에 늙어갈수록절어가는 엄복동(嚴福童)군의 출전이다 이밧게도 방수(放手)경기와 지주(遲走)경기는특히도 록 우뢰가튼 관중의 관중의암이 터지도록 우겨수엇다 관중이나 선수나 주최측이나한가족가치 하루의질거움을 나누고 오후여섯시쯤 유량한음악으로써 해산하엿스나 그리고그날 전적은 다음과갓다

▲二千五百米決勝
1、裵鎭甫(群山)四分二十八秒 2、權裕洪(大邱)3、金判龍(光州)

▲五千米決勝
1、金榮鎭(平壤)九分八秒一 2、金判龍(光州)3、孫基數(大邱)

▲七千五百米決勝
1、[illegible]十分十一秒七 2、權裕洪(大邱)3、金仁[illegible](京城)

▲八千七百五十米決勝
1、張基興(鳥致院)十七分三十七秒二 2、吉龍善(大田)3、蔡鍾德(群山)

▲一萬米決勝
1、吉龍善(大田)十八分二十九秒五 2、權裕洪(大邱)3、金判龍(光州)4、康奉三(木浦)5、宋漢慶(木浦)

▲女子選手一千七百五十米決勝
1、白星烽(京城)四分二十七秒 2、朴淵貞(京城)最後決勝朴淵貞

(사진상은경기장면 하는우승기수여식광경)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社를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全北支社 位置 全州府高砂町一四二 支社長 金景宅 昭和十四年八月三日

謹告

全北支社 右新任 支社長 金景宅
右解任 支社長 金昌洙 全北支社 白

忠南支社 右新任 記者 柳漢植 忠南支社 白

濟州支局 右新任 記者 李致良 濟州支局 白

咸興東部分局 右新任 分局長 韓林
右解任 分局長 陳致鏞 咸南支社 白

偉大한感化를줄 거북섬의自然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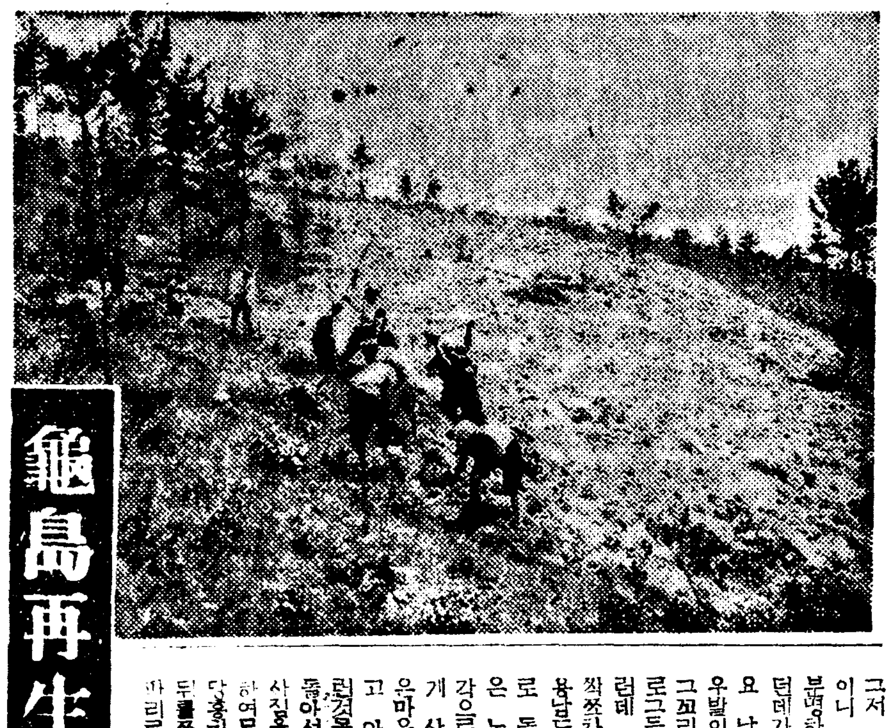
由緖기픈傳說조차가지가지

木浦支局長 薛峻頎

(솔포기를 움켜쥐기도 하면서 비탈을타고 한참올라바로 거북의 장골박이라는데다다라서 땀을씻스며 사방을 둘러보앗다 찌는벼에 삶긴듯한(솔바들 씻서몰려오는 우수수하는 송풍은 밀물을따라 출울 불어오던 아까바람보다는 미지근하여 섬도역시 다른육지나 다름업고나 하는감을주엇다 나무스군과 낙시스군외에는 별로 사람발에 밟혀보지못한 무인도라 토질은 비옥한편이 아닌모양이나 바다로 꺼꾸로 떠러질듯이 서잇는 청송괴석으로 꿈개수를노흔듯한 절벽이라든지 아프로 뚝지인 바다에 놈실거리는구름스장가튼 물스결이라든지수평선너머로 가물가물 너머가는 물새떼의 모양이며 적은섬머리로 큰섬이 넘겨다보이는경치란 기묘한 필법으로된 회폭을 이루고잇서 자연의감화인을 적지아니한 길이길이두고보고시픈 아담스런곳이다

한거름압선 윤원장은 자기를 돌아보며 저기가 우리재생원 자리요하며 손을들어 새재목을 하야케 깍가 세운곳을 가르친다 바라보니 아직도 판역두바탕의 거리나 되게 짐작된다 보기는 째큰섬이라고기장혼자 중얼거리는소리에 처음와보느냐고뭇는다 대체 삼십여년을 목포에다 뿌리박고살랏서도 와볼인연이 업섯거니와 이런승지가 어째서여태껏 호기심만흔 목포사람눈에 띄여 처녀정조를 깨트리지안코 꿈게잇슨것이 이상한일이라고한즉 그러기말이지 몰각유주라하지안소? 쉬운말로시장을 면하고 쉬군들에 목을취긴후에 겨울에는 봉모범부억아궁이 여름에는 구쇠진담모퉁이를 차지드는 저주바든무리에게 이런복지를 주려고조물주가 천지창조시에 따로간직해둔게요 하고 속이시원한드시 한바탕우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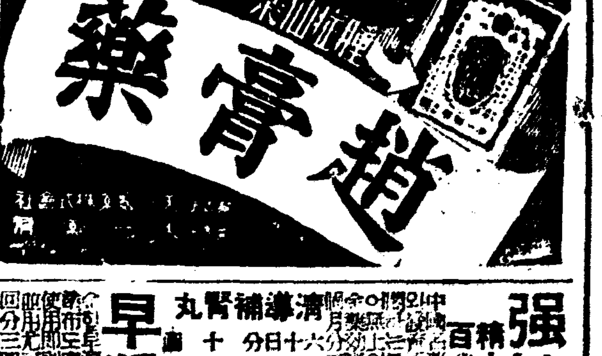
지실은 우리고아원에서 나스살이나 먹은아이들은 이리로자급자족을 시키려고 삼년전부터 눈독을들이고 하고만시픈생각에 시작만하면 되려니하는 마음으로 피ㅅ천한푼업시 엉터리로사려고 멈비엇스나 게다가 그때엔모보호가별장을짓는니 어쩌느니하는 소문이돌아서 갑출잔득 탱기고잇서 홍정이 떠러지지아니하엿던바(갑출지러출은도 당장어섯지만은) 마음먹고는 안되는일이 업슴인지 이에관심이기픈도전(稻田)목포서장과 정제현(鄭濟賢)경부는 걸인부랑자를 퇴치하는동시문화도시를명랑화하게하려는 일거양득의방침으로 목도(木島)란 무인도에걸인수용소를 창설하고당시부내산정리(山亭里)부근에서한촌을이룬 어백명의 걸인군을강제수용을하여 일정한노력으로 자활의힘을 길러주려던계획을실시편의로 이귀도로결정하고 차남진(車南鎭)씨기부로 전도사만평을 일천원에매수하게되어 결국 소원성취를한것이라고 이곳 아이들에게쪽돌려준다 더구나 놀랜것은재미잇는 전설이잇습니다하고말을계속한다 섬이름이 거북섬이란것이 벌써 수상하지만은 이조고만한 섬에 재법전설까지 잇기를 바라기어려운일이다 재미잇는 전설이란이러하다 노인들말을 듯는다면



(사진은작업하는광경)

그저 입에 씹괴는대로 거북이니 무엇이니한것은 아닌이분명하다아까 우리배가 대여던데가입을벌리면 거북의입짬이요 남북으로빠진 산발은그좌우발이요서편으로 쭉빠진데가그꼬리라하는데 재생원은 바로그등에 실려잇는셈이다 그런데 이거북섬의 꽁문이쪽비딱쪼차 오는듯한 길다란섬은용남도(龍男島)라하고 남편으로 돌아서서 뛰여가는듯한섬은 노루섬(獐島)이라한다 종강로잇는용이 거북 색씨에게 사랑을청하매 처녀의수집은마음에나 얼굴을화 붉혀가지고 아이고망칙도해라 나는그런걸다요하며 대번에쫏차고돌아서서 나무개란 목포군이사질을짜려한작 사랑에 실패하여무안한용은 성이나서 그다홍치마자락을 움켜붓들려고뒤를쫏차 소리처오매 하롱품파리로 이사짐을 지고가던노루는엣키이속도업는 남의사랑싸움에 큰코닷치겟군하고 등에지집을거북다메 중통을차서두쪽에깨트려내던지고 네굽을모아 화원목장(花源牧場)을향하고 뛰여간다는 이귀도아때두쪽에따랏다서 나란이서잇는장방형의바위가 즉거북 색씨의 거리장이라한다 그래서예로부터 쪽긴거의 괴란처라하여 죽을죄를 지은지라도 이섬으로 괴신만하면 쫏길에쓴경험을 맛본 거북아씨의 보호로 영락업시 살아나는것으로 갑오년동학란에도 나주제방섬의 동학군이 유도(六島 // 龜島西便에 부러잇는 數百戶가 사는 큰섬으로 괴신한자는 다른변을당하엿스되 이거북섬으로 괴신한자는 열이면열이 다살앗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남아잇다 (계속)

龜島再生園을차저서 ②



納凉興行 八月八日밤부터 演劇號 公演 文藝部 編 京劇 杏花村의등불 全二幕 多恨한妓女史의性格描寫 嘉問 全二十景 天才的少女歌姬 當年六才 東洋의샤―리템풀 金吉子 熱演 相對役 金順鶴 嬢 大衆 大人 料金 小人 二十錢 假設劇場서에 (每週每日交換) 仁寺町朝鮮劇場跡

療治師短期養成 日滿政府特許 英米獨佛特許 器械鍼 ○廿歲以上의男女修得保證 鍼灸 ○朝鮮鍼術治療院開業營業不振者歡迎退職官吏教員適 通信科·實地速成科 全國無試驗開業 ○僅少資金好職業永久責任 官廳死亡證明完備學則文獻 送呈(郵券二錢必要) 京城府大和町二丁目五五 奥村療法朝鮮學院

金儲王大 五合米が八升に 製菓法傳授 ドーリー式 穀物膨脹 元賣發作製 兒島製作所 大阪市北區山田町九番地

名刺 上質百枚入 一圓五十錢 京城府仁寺町一二〇 朝鮮印刷株式會社 ○急行 ○一店限特約店

高木貴金屬店 京城本町一 電本一九九〇 ダイヤモンド專門

朝報案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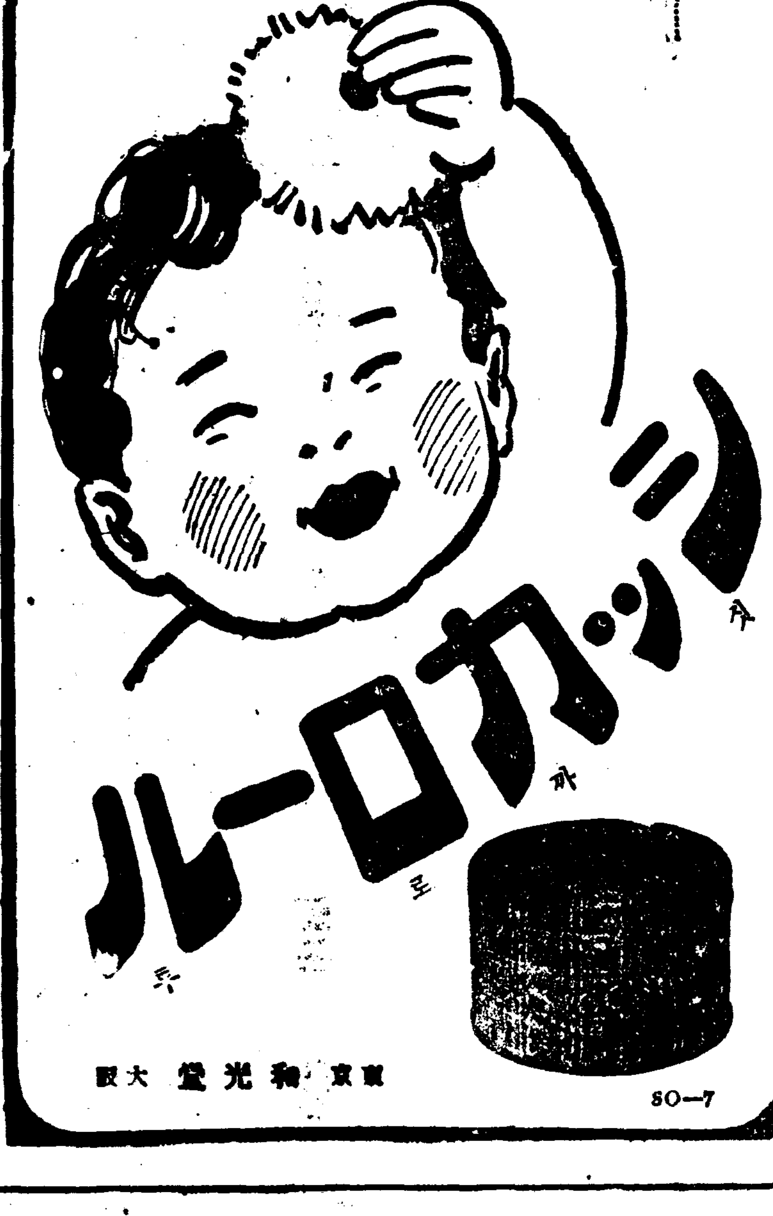
求妻 四十男實業家與妻求 婚希望者는過去身分前 身不問希望者는釜山府草梁町本報 慶南支社與義軌氏之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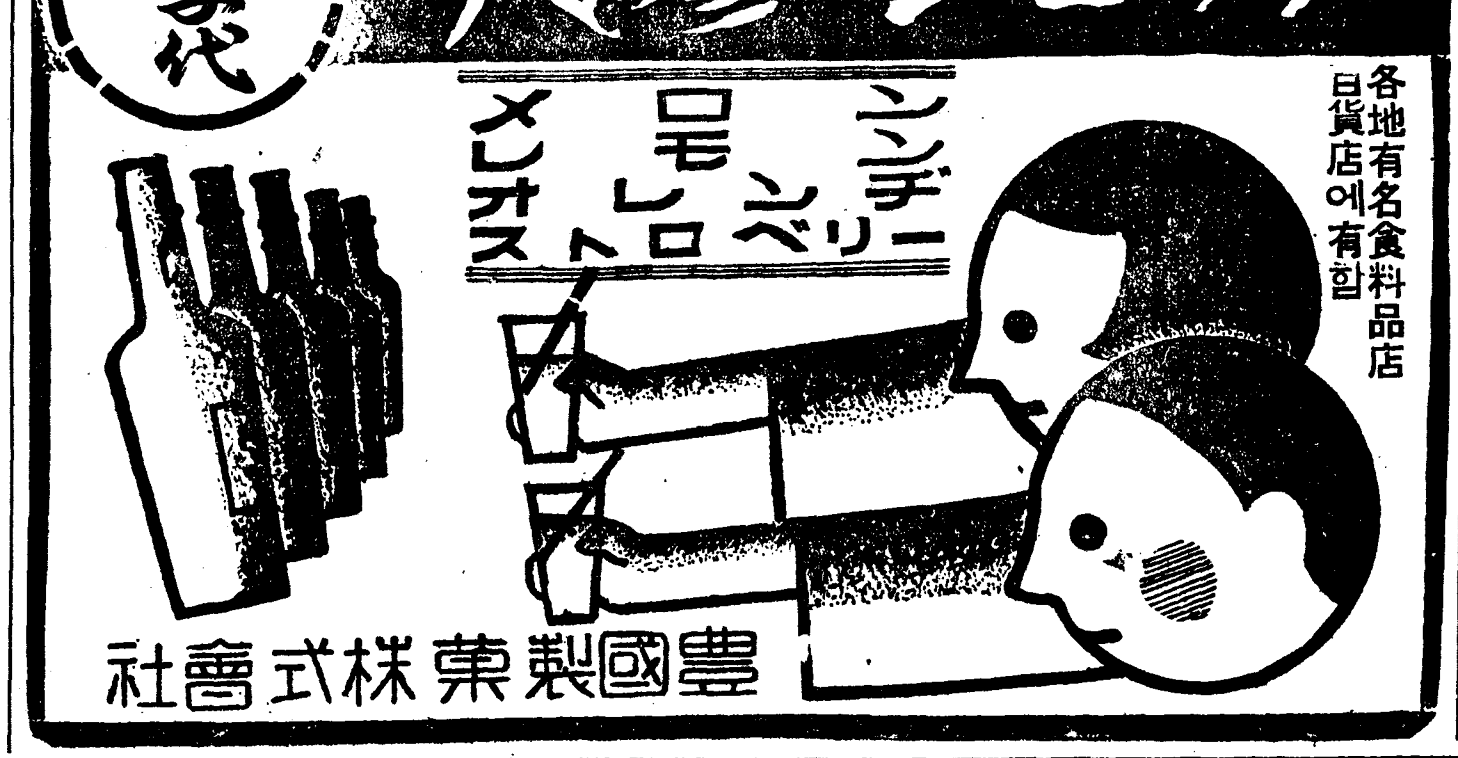
本社京城販賣所 電本② 一五九七

사랑도 하 ᄂᆞᆫ 오라 名花 南一鶯 吹込 李孤帆 作詩 李龍俊 作曲 40862 레코―드는 콜럼비아時代 Columb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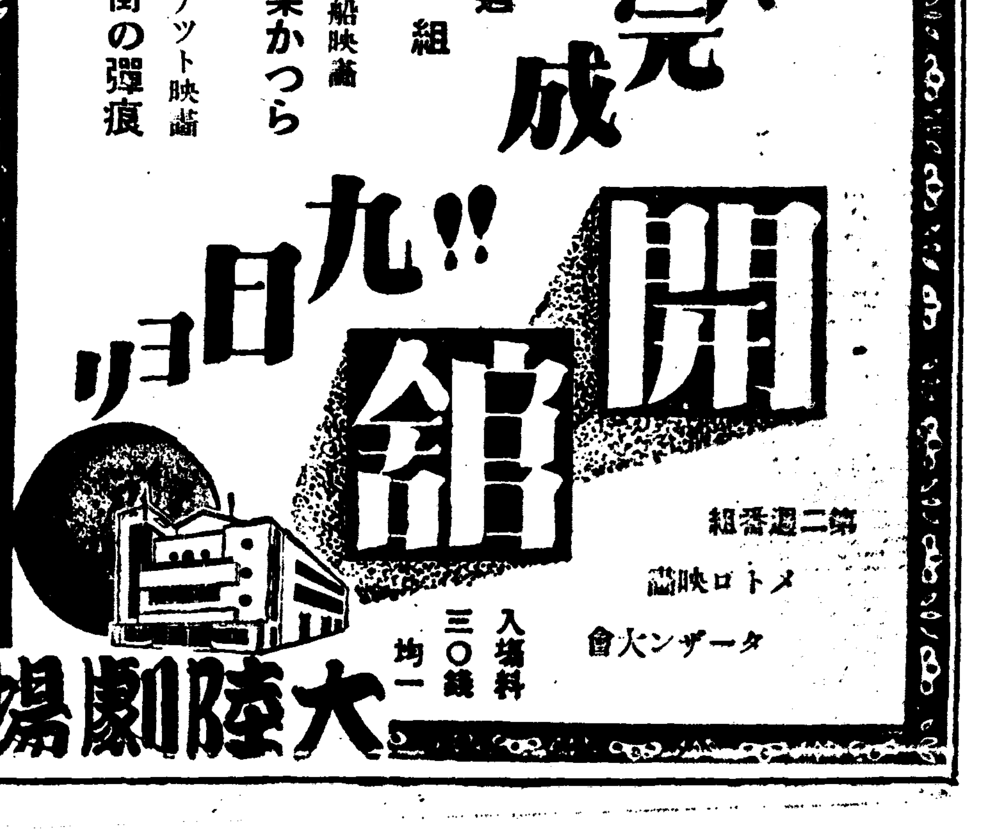
專賣特許 自宅에서되는일 감見本無代進呈 男女適否不問 机上에서 마루후쿠 大阪天下茶屋 用紙

強性強精藥 精力衰退와早漏에 百發百中! 早漏防止 國境大藥房 濟導補腎丸





朝鮮日報間島支社 電話八二七番



經濟解說 日米通商史

❶ 修交以來八十年

米國政府는「新事態에 相應치못하다」라는 理由로써 突然 現行日米通商航海條約의 廢棄를 我方에 通告하여왓다 그結果新條約의 締結을 보지못하는限、日米通商條約은 六個月後인 來年一月에는 失効케되고 그以後는 通商上 日米兩國은 無條約國으로 될터이다

現行 日米通商航海條約은 明治四十四年 即只今부터 約三十年前에 締結된것으로 오래기는 오랫스나 條約의 廢棄를 그러케 簡單히 할것은 아니다。

×

對日今葉가장 惡化되어잇든 滿洲事變當時에잇서서도 이러한事態를 招來되지는 아니하엿는데 今回의 廢棄通告는 如何튼不可解한일이다。條約廢棄의 動機에 對하여는 여러가지로 推測되나 가장有力한理由로서는 如左한것이 考慮된다

一、米國의 在支權益을 擁護키爲하여 日本에對하여 自由한立場에설必要가잇다는것

一、對日武器輸出禁止를 하고자그러는 데障碍가되는 最惠國約款을 規定한條約의 廢棄가 必要하다는것

一、來年의 大統領選擧戰을 압두고 選擧對策上『루ー즈벨트』大統領이 取한 作爲에 基한것으로보이는것

等그理由는 何如間에 日米會談이 進行되고잇는때에 無論의一部에 運合하여、國內政爭의 道具에 供하는것은 心外의일이엇다

그뿐아니라 廢棄通告文中에는 新通商條約締結의 意思를明示하지안흔것은 非友誼的態度라할수밧게업다。그러나 일이이러케된以上 最後만을 할것이아니라 今後의米國의態度如何를注視하고 그에對할 準備를하는것이 必要하며 이에日米通商關係의過去를 回顧하여보기로하자。

×

嘉永六年 即只今부터八十六年前 米國水師提督『페루리』가 軍艦四隻을 引率하고 琉球에들어와 石炭을 小笠原島에서 積載하고 六月三日에는 浦賀에나타나 德川幕府에 鎖國의 夢을解하고 通商條約을 締結할것을 求하자 當時泰平에서셔던 國民의 午睡之夢을 깨트리게되엇다 세로운 世界가잇는것을 알게되고 이로부터 攘夷이나 開國이나는것이 國家的 큰問題로되어 歷史的一頁을 記錄하게되엿다

어이업서 米國은 一七八九年 建國以來 大業이完成되자 領土가擴張됨에伴하여 一八四六年에는 가리포르니아州를 占하여 大西洋에서 다시太平洋에 面하는 나라로되고 泰港에서 支那에의 通商航路를 열고자 日本에 開國通商을 要求하고 我國에다가 必要한 貯炭所를 設置하려고 한것이다

그런데『페루리』는 約束에 依하여 翌年인 安政元年(一八五四年)再次 軍艦六隻을 引率하고 浦賀에來航하여 드디어 所謂神奈川條約의 調印을 보게되엇다 이것은 我國으로서 正式으로 外國과 文書를交換하여 締結한條約의 最初의것이다 다음에米國은 神奈川條約의 規定에依하여 安政三年(一八五六年)總領事『하리스』를 下田에 駐在시켜 通商條約의 締結을 開始하엿다。明敏한『하리스』는 그때의幕府에 對하여 時勢를說하고 開國의必要를 力說하여 井伊直弼이 大老로됨을따라 이에日米通商條約이 調印되엇다。때는 安政五年六月이엇다。

×

如斯히 進取의 氣象이만흔 米國은 當時保守退嬰의 我國民으로하여곰 開國하여 歐米諸國과 交通할길을 열게하고 親切한 先進國으로서의 態度로써 我國을 指導하엿다。그런데 此間에 我國과米國과의 貿易關係는 如何한 發展을보엿는가 安政五年 日米通商條約의 締結에依하여 兩國의 貿易은 增進의 一路를밟게된 것인데 그것이 正式으로記錄되기시작한것은 明治六年부터 이엇다。即同年의 我對米輸出은 四百二十二萬六千圓、輸入은 百一萬七千圓으로 三百二十萬九千圓의 出超로되엇섯다。그리고 同年의 我對外貿易은 輸出二千百六十三萬五千圓、輸入二千八百十萬七千圓、入超七百三萬一千圓으로서 이輸出入總額에 對한 米國과의 貿易의 比率을 보면 輸出은 約二割가량 輸入은 四分未滿이엇다 그러나 其後明治十二年에는 對米輸出은 一千萬圓을 突破하고 我輸出總額에 對한 比率은 三割五分가량으로 激增되어 一方 輸入도 同年에는 三百二十一萬二千圓으로 增加되엇다 其後最近까지의 日米貿易의 數字를보면 如左하다 (單位千圓)

	輸出	輸入
明治廿年	[illegible]	[illegible]
三十年	[illegible]	[illegible]
四十年	[illegible]	[illegible]
大正元年	[illegible]	[illegible]
六年	[illegible]	[illegible]
八年	[illegible]	[illegible]
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十三年	[illegible]	[illegible]
昭和八年	[illegible]	[illegible]
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十三年	[illegible]	[illegible]

右表에依하면 明治以降昭和六年까지를 通하여 一、二例外는 잇섯스나 거의每年我方의 出超를 維持하고 만흔때에는 大正十四年과가치 三億圓을넘는 때도잇섯다。그러나 昭和七年以降에잇서서는 그것이 逆轉하여 도리어 我方의 入超로되고 最近에잇서서는 例컨대 昭和十二年度에는 六億圓以上의 巨額의 入超를보이어 同年에잇서서의 我國總入超六億三千五百萬圓을 獨占한 形勢로되엇섯다 (續)

棉花共販價格 算出基準變更

紐育市勢에서離脫·大幅引上 總督府單獨으로決定

從來朝鮮內棉花共販價格은 紐育棉花市勢에서 大阪着價를 算出하고 이에서 朝鮮에서 大阪까지의 諸費用、棉實率等을 參酌한後 綿絲業者、道、總督府의 三者가 協議하여 決定되어잇섯스나 棉製品의 國內販賣禁止 其他의纖維事情의 變化及增産促進의見地에서 昭和十三年에는 右算出基準을 變更하고 大阪市勢에서 算定한 基準價보다 十圓高로 決定되어 一旦紐育市勢로부터 離脫하엿스나 其後의纖維事情은 벌서紐育市勢를 基準으로하는것은 全然 無意味하므로 今年부터는 三者協定을廢하고 總督府單獨으로 一、國內綿布市勢及 代用品市勢 二、特免綿絲의市勢 三、棉花增産 等을 照合하여 適當한價格을 算出하기로되엇다 그리고現在의 朝鮮産棉花市勢는 右三點에서보아 顯著히低値에 잇스므로 結局相當大幅의 引上을보리라한다 細則을規定할 省令이나온後일것이다

米穀配給統制法

第四條는무엇인가

昨今朝鮮內 期、正米市場에서 그施行을 重視코잇는 米穀配給統制法 第四條란 무엇인가

農林省은 最近의 出廻薄에依한 米穀需給關係의 窮塞과 米價昂騰에鑑하여 그對策規定을 急히施行코저 準備中인데 去四日閣議에서 이에關한 勅令案을 決定하고 來十日 이것을公布하여 日本米穀會社의 監督 同會社新市場開設에伴한 旣存取引所의 善後措置等에關한 同法의 規定과 共히 今月十二日부터 施行키로되엇다

第七十四議會에서 成立되어 去四月十二日公布된 米穀配給統制法의 諸條項中一般國民大衆과 直接關係잇는 第一重要한 第四條第一項이라는것은

政府에서 特히必要하다고認할時는 米穀의買入 或은 賣渡又는그代理或은 媒介를하는者에게對하여 勅令의定한바에 依하야 米穀의 配給統制上必要한命令을 할수잇다

이라는것이다。이規定에基한命令事項의範圍、發動者、發動手續等은 十日公布될勅令에依하여 定케될것인데 이命令은 (가) 米穀의買占 又는賣惜[illegible] 한變動等을 防止하기爲하여 必要한事項 (라) 災害事變의境遇의 緊急措置 (마) 其他配給統制上必要한事項의五에限하고 그直接發動者는 農林大臣(米穀商人及其團體에 對한 命令의 一部에限하야、農林、商工兩大臣)이오 또特히 緊急을 要할 境遇를 除하고는 米穀統制委員會에 諮問한後 命令을發動하게되는것이다。

이리하야 緊迫化한 米穀事情에應하여 農林省의企圖한 米穀配定制等配給統制實施의 準備는 大體整備되엇는데 具體的發動의[illegible]

米穀二法令 立案終了

近間法制局回附

朝鮮에잇서서의 米穀配給統制는 朝鮮米穀會社令及 朝鮮米移出調整의 二法令에依하여 統制하기로 決定하고 事務當局에서 그成案을 急히하고 二法令이모두 最近 完成되어 八日부터審議委員과 協議를 하고잇는바 協議成立을기다려 十五日頃 下飯坂米穀課長이 渡東하여 法制局과 折衝을 開始하기로 決定하엿다한다

産業

第三國으로 苹果輸出計畫

農林局에서는 國策的見地에서 第三國向 苹果의輸出을 强化하기로決定하고 目下 三井、三菱兩會社에 委囑하여 海外市場의現況을 調査中인데 右調査가 完了를기다려 右에則應하는 輸出振興策을 講究하기로된바 苹果가 印度方面에 相當히 進出하고잇는데 鑑하여 朝鮮苹果의輸出도 相當히 好望視되고잇다 第三國向 苹果輸出高는 昭和十[illegible] 約一萬圓으로 其後國內[illegible]

五倍子移出

取引協定成立

內地의 五倍子需要의 大部分은 支那로부터 輸入한것으로充當되어왓섯는데 日支事變의 影響을바다 支那産品의輸入이 困難하게되어 商工省에서는 內外地의 需給關係를圖하여 一丸으로하여 需給調整을 期하고 朝鮮産品의 移入을 極力促進하기로되엇는데 朝鮮에서는[illegible]하게되고 價格其他에對하여 協議한結果 다음과가튼 移出協定이成立되엇다한다

一、取引價格은 正味百斤四十九圓(倉渡價格)으로함

二、手數料는 取引價格의百分의一로함

馬糞紙使用制限

輸出包裝用確保코자

【東京電話同盟】 躍進하는 日本의 代用品工業은 鐵製罐의 代用으로서 馬糞紙를 使用하는데 成功하고 最近에는 輸出包裝으로서 馬糞紙가 使用되게되어 需要가 激增되엇스므로 商工省에서는 輸出包裝用의 馬糞紙를 確保하기爲하여 近近國內의 馬糞紙使用을 制限하기로 方針을 決定하고 白糖、茶糖、馬糞紙의 三種中 爲先馬糞紙를 先着으로 使用制限을 하기로되엇다 그結果 冊의表紙等을 爲始하여 冊函等比較的 不要不急으로보이는 商品의 馬糞紙가 자최를 감추게될 모양이다

小運送料金 引上機運

鐵道局態度注目

小運送의 料金問題는 勞銀高 經費增大로 一兩年來引上 機運에當面하고잇스나 指定運送인立場에서 朝鮮運送이 極力自制하여 現在에이르럿는데 朝運自體로서도 經費高의 困難이 深刻하게되고 다시代行營業所方面은 자못强硬하여 그形勢가 注目된다 即朝運은 從來陸運의 經營[illegible] 近에는 代行의 苦惱는 去益加重되고 朝運自體로서도 經費膨脹은 감출수업게된모양이다 그러나 低物價 政策時이기도하여 小運送料金引上은 鐵道局의 態度가 注目되고잇다한다

睡眠鑛山

開發치안으면 强硬手段講究

全朝鮮에二千四百

殖産局調査에 依하면 全朝鮮에 잇서서의 睡眠鑛區는 二千四百에 達하는데 右는全鑛區의 四割을占하는 數字로서 時局下産金增産의 必要가 强烈히 要望되고잇는今日 如斯히睡眠鑛山이 多數에達하는것은 許容할수업는일이라하여 近近此等에 對하여 適當한 措置를取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右鑛區中에 保護鑛區와 가튼 特殊한事情에 잇는것도잇스나 其中에는 利權「뿌로커ー」的 存在도 不少하므로 總督府에서는 于先 睡眠鑛山의 內容을 調査하여 開發의意思가 업는것에 對하여는 相當히 强硬한手段을講究코저 極力鑛區의 內容을 探査中이다 그런데 探鑛이 良好한것은 거의開發되엇스므로 一部의 投機業者를 除外코 거의探算不合인 貧鑛으로보이므로 右措置가 增産上에 齎來할 效果는 그다지 크지못할것이라한다

過燐酸等도 輸出許可制

九日附로發令

總督府에서는 臨時肥料配給統制令에依하여 過燐酸石灰、石灰窒素、粗製加里鹽類調合肥料、化成肥料及 이에類似한肥料에對하여 輸出許可制를 施行키로되어 八月九日 府令第百二十九號로發布 即日施行키로되엇다

黃海道에螟虫發生

大豊作이 豫想되어잇는 黃海道一圓의稻作은 當初用水潤澤으로 移秧及其後의 成育狀態는 非常히順調이나 最近繼續하는日照로 곳에依하여는用水不足의 個所가잇서서 이대로降雨가업스면 若干憂慮할것이잇고 또最近螟虫이發生하엿다

煙草耕作奬勵金

六萬五千七百圓

專賣局管內의 昭和十三年度의煙草耕作成績은 至極良好하여 其奬勵金 交付總額이 六萬五千七百六十九圓에 達하여 前年度에比하면 約六分六厘의 增加이오 交付人員은 五千五百五十五人으로總耕作者의 四分二厘이나 耕作成績優良團體로서 道知事로부터 奬勵金의 交付를바든것은 五十一團體 其奬勵金總額千五十五圓이다

타이야추부 各道別配定

타이야추부의 九月分配定은 一萬四千百二十五本으로 前年보다 四千百二十五本의 增配로 決定되엇는데 右道別配定은 如左하다

京畿	[illegible]	忠北	[illegible]
忠南	[illegible]	全北	[illegible]
全南	[illegible]	慶北	[illegible]
慶南	[illegible]	黃海	[illegible]
平南	[illegible]	平北	[illegible]
江原	[illegible]	咸南	[illegible]
咸北	[illegible]		
合計	一四、一二五		
前年同期	一〇、〇〇〇		

淳昌『또렝지』鑛業會社創立

尹明鉉氏를 中心으로 計劃中이던 淳昌또렝지鑛業株式會社는 지난七月十八日 創立되엇는데 資本金은 百二十萬圓全額拂込이오 全北淳昌에서 지금「또렝지」를 採掘中이라는바 同社의陣容은 如左하다

▲社長 靑木彬 ▲專務 尹明鉉 ▲取締役 芳木薰、赤松久吉、金仁述 ▲監査役 川島銀平、朴龍雲

小運送業令 制定에示唆

內地의免許制度失敗

朝鮮의小運送業令의 制定은 內地小運送業令의 實施에도 不拘코 免許制度實行의 結果、業界의 不統一 經營合理化로 카버ー하고 增大를 企圖하엿스나 最近好調의 海運方面 公用方面으로 均衡을 取하여왓스나 陸運自體로서는 不完全히 無統制를 暴露하고 第二次統制가 必要한 狀況으로 朝鮮의 同令施行上에 큰示唆를 줄수잇다한다

鑛業用物資 各道一元統制

殖産局에서는 鑛業物資의 圓滑한 需給을 圖하는 初步로서 爲先 配給機構를 一元化하여 各道에서 配給시키기로 方針을 決定하고 右에對한 具體的研究를 하고잇는데 成案을 어드면 곳實施하기로되엇다 即 現在鑛業用物資는 道와 中央鑛業協議(地方은地方協議)의 二個所에서하고 道에서는 釘、針金、鐵板等을 主로 配給하고 協議會에서는 鐵、鋼材、水銀、中空鋼等을 配給하여왓스나 協議會는 中央과 地方과의 連絡이 距離 通信의 關係로 不圓滑하므로 道에 鑛山係官의 配置가 完了된것을 機會로 配給機構를 一元化하여 道에 配給시키기로 하는것이다 이에依하여 配給은 相當히 改善될것으로서 期待되고잇다한다

液化石油 賣出決定

野口系의 日本石炭工業의 咸北灰岩石炭液化工場은 近日中에 製品을 大大的으로 市場에 賣出하기로 決定하여 자못 注目되고잇다한다

京城勞銀昂騰

鮮銀調査=七月中의 京城勞銀指數는 二二三、八로 前月中에比하여 一、三、前年同月에 比하여 一一、八이 各各昂騰을보엿다

石油配給再削減

九ー十二月또三割供給減

七、八月의石油配給은 四、五、六月의配給보다 平均二割을減하여 業界에衝動을주엇는데 九月부터十二月까지의四個月은 다시 三割削減으로 決定되엇다 最近에이르러 今年의供給數量減이 判然하게되엇스므로 九月부터 다시 三割의配給制限은 緩和할方針이엇다가엇고 九月以降의三割再削減은 必至로되엇스므로 今日까지 産金關係에는 優先的으로 比較的緩和하엿스나 官公署方面에는 九月以降은配給을 嚴密히하게되엇다한다

朝鮮銀行異動

朝鮮銀行에서는 八月七日附로 如左히幹部級異動을 發令하엿는데 關係事業에 轉出 停年制施行後의 急한人事에 依하여 兼務、缺員中이던것을 全面的으로 補充하엿스며 地方支店支配人에 中堅行員拔擢이 눈에띄운것이잇서 本支店을 通하여 適材適所의 人事라하겟다

▲庶務課長 久保秀一 命檢査役 ▲檢査課長 福井隆一 解檢査課長兼務 ▲調査課長兼檢査課長兼務 ▲群山支店支配人 宇野吉太郎 命庶務課長 ▲大阪西區出張所支配人代理 中村芳治 命群山支店支配人 ▲大阪支店支配人代理 鹽崎宇左吉 命大阪西區出張所支配人代理 ▲國庫課勤務 渡邊柳一 命國庫課長代理 ▲本店勤務 川內安雄 命本店支配人代理 ▲木浦支店勤務 花田正人 命木浦支店支配人代理 ▲群山支店勤務 河口薰 命群山支店支配人代理 ▲仁川支店臨時支配人代理 古家峰 命仁川支店支配人代理 ▲鎭南浦支店支配人代理 [illegible] 支店勤務 滋田啓弘 命鎭南浦支店支配人代理 中村榮祐 命支店課勤務 ▲東京支店勤務 鈴井武夫 命元山支店支配人代理 ▲大連支店勤務 細野留雷 命淸津支店支配人代理 ▲靑島支店勤務 石井武夫 命京城總裁席勤務 ▲元山支店勤務 井口立平 命京城總裁席勤務 ▲下關支店支配人代理 村嶋武秀 命京城總裁席勤務 ▲檢査役 島津淸一郞 命支店課長代理

寸鐵

▼…麥酒一瓶 四十二錢也、一圓이면 카페가 잇슬지모르나 內地서는 四十一錢이 公定價인데 이中에 얼마가 稅金인가? 內地의 例를들어보면 如左。

▼…麥酒의 內地消費高는 二十三萬六十石 이外에 二十四萬石은 輸出과外地消費。

▼…四打入一箱都賣價 十七圓八十七錢 其中七圓十七錢이 酒石稅 附加稅(一石酒石稅는十圓)。

▼…都賣價와 小賣價의 差는 一箱에 一圓三十五錢 即 中間搾取는 一瓶에三錢。

▼…麥酒一瓶에 稅金이얼마나 計算해보면 支那事變特別稅가三錢五厘、物品稅가十六錢、總계 十九錢가량이 麥酒를 通해서 納入하는셈。

今日의市勢 八日

期米 續堅이나 伸惱

前場續强 今朝阪地三十九圓三十五錢인 五丁反高를 接하고 當限은寄賣不成 中限六圓○七錢、先限은 三十七圓九十錢인 四丁高로寄를始한後 反撥을見하엿다가 三十八錢에 止합 結局九十錢까지返하여 八十九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少堅 後場은 三十七圓九十錢 一丁高로 始하여 二節九十錢 三節九十一錢 四、五節은모두九十三錢이엇다

株式 頭重 反高後에

前場反撥 今朝는東新一圓九十高인 百三十四圓八、鐘新一圓三高인 八十九圓、鐘紡百五十六圓에反高寄된後 伸揚商狀을呈하다가 引際에는 更騰되어 結局東新百三十五圓三、鐘紡百五十六圓丁、鐘新八十九圓丁、滿業七十七圓丁에大引

後場揉合 後場은 東新四十七圓丁에 軟化寄付後反昇을 見하여 小往來揉合商狀이엇다

米穀配給統制 四條畢竟發動

政府는現下米穀의 諸事情에鑑하여 結局十二日부터米穀配給統制法第四條를發動시키려고 萬般準備를하고잇는中이다 이四條의 適用範圍는 非常히廣汎하여 이一條만 實施되면 米穀統制法은 完全히그機能을 發揮할수잇는참으로의 强力政策이 될모양이다 此米穀配給法第四條를 擧하면左記와갓다

米穀配給統制法

第四條 政府는特히必要잇는境遇에는米穀의買入及賣渡 又는此그代理或은 媒介를하는者에對하여 勅令에定한바에依하여 米穀配給統制에關한 命令을 할수잇음

市場六感

㊑…昨日後場의 急落의뒤를이어 今朝는 急反撥을보여 波瀾漸加形勢 ▲今世界的으로 重大性을띤材料가 踏至하고잇스니 比手들도 迎擊에困難을 느끼는모양 ▲이러케되고보니 所謂早耳側의 獨舞台로되어『마바라』가 徹底히 翻弄을 當할念慮도不無 ▲目前再開日米會談의 推移如何에따라 市勢도相當한 波瀾을呈하게될듯한바 果如何

㊍…今朝는 阪地三十八、九錢으로 反撥하여 따라當地도 또한强硬하여 若干反高를示하엿다 그러나 高價일수록 軟派는 態度自若自在 ▲政府는 米穀配給統制法第四條를 發動시키어 徹底히米價를 抑壓할모양 ▲又一番은先安勢를 보는때로 低落의程度가 마치 何如할지는모르나 局限된高價를 보고서 買固執을 할수업는것만은事實 ▲今期場은 當中이八圓○九錢、先限이七圓九十錢으로昂騰하여 자못强勢를보이고잇스나 買進勢難地가업는바야奈何?

波瀾漸加形勢

昨日前場에는 北樺太石油問題의 好轉等으로 東新이 一圓가[illegible]

正米 自重裡에 底堅

京城釘付 在米高는 날로 減少되어 第四條施行說로 所持側은 相當히 賣惜을하나 買方은 採算關係로 傍觀하여 雙方이모두 推移를 注視하고 消極的이어서 氣配도前價同樣으로 保合이엇다 ◎穀良三等 三六、二○ 四等三六、○○ 一等白米三七、五○

仁川不動 第四條施行說로 去來閑散되어 雙方이모두 그推移를 注視하고 賣商側은 稍白側도 消極的이어서 前場商況에比하여 市中은 이러타할만한 商談이업시 全然閑散場面이어서 不變唱이엇다 ◎穀良三等三六、二○ 四等三六、○○ ◎一等白米 一五、九○

釜山同調 市中人氣는 天災와政策에끼어 必需飯米에對하여 不得已하나마 義理的商談을 除하고는 거의업고 또奧地도 貢物을出廻치안하 閑散場面이어서 市勢도前價同樣이엇다 ◎穀良三等三九、二○ 四等三九、○○ 一等白米一六、二三

大邱不變 奧地의賣出廻는 天災와政策에끼어서 市中人氣는 立秋를마지한 도別로效力이업고 [illegible]

群山底堅 市中人氣는 立秋를 마지하여 今年作況도 大體로 豫想케되엇다 [illegible]

木浦强調 立秋를마지하여 [illegible]

不自由의市勢

總督府當局의 方針에依하여 朝取當局이 決定한 採算高價 三十八圓四十錢은 絶對不動할 將來朝鮮米의 公定高價나 다름업는 制限價格이므로 그以上의 買進에는 아무런 强氣側으로도 自由로히 [illegible]

新租初賣買

昨七日 仁川正米市場에서는 新租의 初賣買가잇섯는데 이新租는 京畿道利川産으로 品質이 良好하데 그賣方은 同郡金炳益、買方은 朝鮮精米所、그數量은 七叺 價格은 每斤十五錢이며 出廻時期는 昨年에 比하여 別差異가업다고한다

現物保合

現物은 昨日後場의 急落을 보고 [illegible]

物價

鹽干魚反昇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海外經濟 七日

[illegible]

銀行券 七日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illegible]

鰯油粕 麥粉

[illegible]

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illegible]

雜穀

[illegible]

綿絲布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京城物價 八日

[illegible]

今日財界 八日

[illegible]

株式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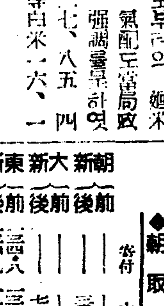
期米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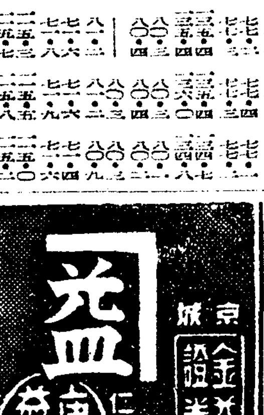
棉花 / 綿布 / 生絲 / 砂糖

[illegible]

金을 政府에 賣却하십시다
金銀賣買會社



株式 期米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마루타마取引店



金益證券 京城 仁川